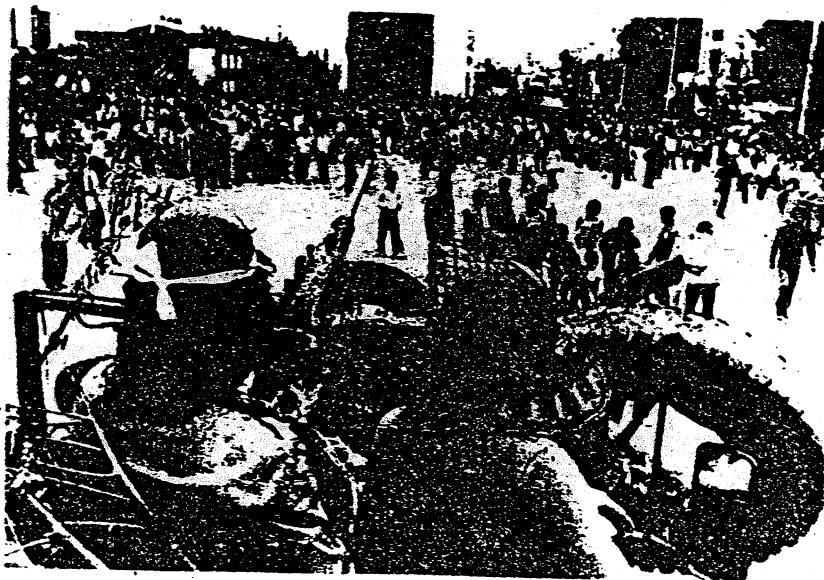


“ 하나가 되어 싸우고 있다고  
온 세계에 알려 주시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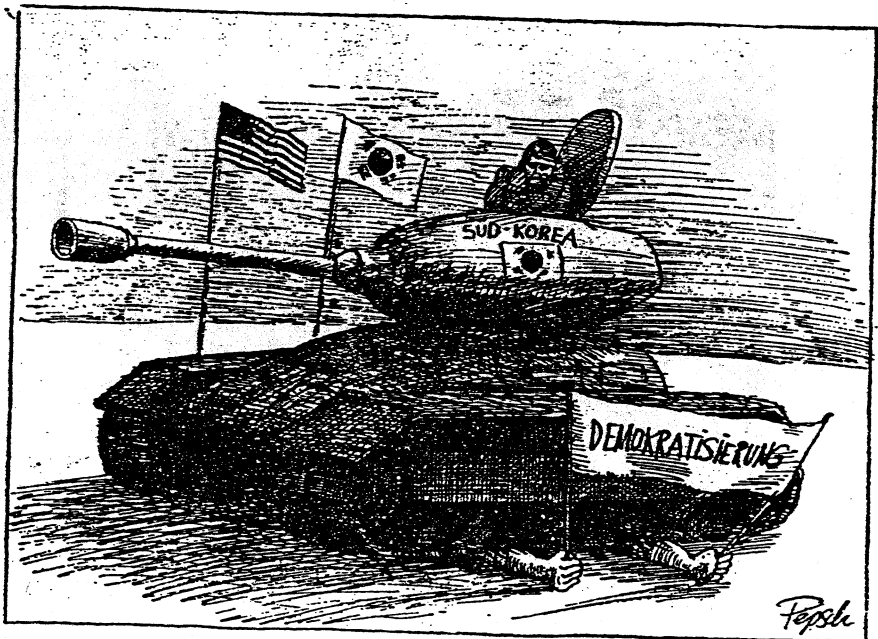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 보고)



광주 시민과 연대하는 재독 한국 학생의 모임

# 차 례

1	취 지 문	-----	2
2	사 건 일지	-----	3
3	현 장 목격담	-----	13
4	외 국 신 문 사 설	-----	16
5	군 부 의 잔 인 성	-----	18
6	새 로 운 군 부 독 제 정 권 탄 생	-----	21
7	한 국 사 태 와 미 국 의 태 도	-----	22
8	국 내 외 신 문 보 도 비 교	-----	25
9	맺 는 말	-----	30
10	부 록	-----	33
	A. 국 내 에 서 보 내 온 성 명 서 및 호 소 문	-----	33
	B. 해 외 민 주 단 체 의 성 명 서	-----	
11	참 고 자 료	-----	



Vorerst gestoppt

SZ-Zeichnung: Pepsch Gottscheber

발행인 : 광주 시민과 연대하는 재독 한인 학생 모임

# 취지문

광주시민항쟁에 연대하며 . . . . .

지난 5월 31일 서독 여러도시에 있는 한국학생들이 불의에 항거하다 숨져간 광주시민의 민주투쟁을 연대하며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국의 비극적 현실에 직면하여 진지하게 국내 상황을 분석하고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궁극적 실현을 위해 우리 세대가 하여야 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좀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국내에서 투쟁하는 민주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민과 연대하는 재독한인학생모임이 결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대투쟁의 첫 과제로 교포사회에 대한 홍보활동은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기로 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 국내의 모든 언론기관이 광주사태의 전상을 왜곡 보도하고 또 본 대사관에서도 광주시민을 용공시하여 그들의 항쟁을 반국가행위로 규정하는 소책자를 만들어 교민들에게 배부하여 군부의 만행을 은폐, 정당시하기에 열안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현재 한국에서 전두환을 위시한 유신잔당들과 이들과 돕는 외국세력들에 의해 자행되는 민족비극의 참상 및 비극의 사회경제적 근원을 교포사회에 알림으로써 모든 교포들이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대열에 스스로 결집하여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민과 연대하는 재독한인학생모임은 광주 민주시민들의 반독재투쟁에 많은 애국민주교포들의 협조와 성원이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싸우는 국내 동포형제들에게 마음속으로부터 연대인사를 보낸다.

1980년 5월

광주시민과 연대하는 재독한인학생모임

# 사건일지

5월 18일

17일 심야 계엄사령부는 진 신민당 대총령후보 김대중씨를 비롯하여, 김종필, 이우탁을 포함한 26명의 정치인, 야당인사, 학생, 교수들을 계엄령위반 혐의로 연행하고, 18일 오전 0시를 기해 비상계엄령을 전국에 확대했다. 이에 항의하여 전남 광주에서는 전남대학교 학생 약 5천명이 오전 10시 반경 광주시 금남로에 집결 "계엄령 해제", "신민화, 진두 환희진"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반정부 구호를 외치면서 가두데모에 들어갔다. 계엄당국은 기동대를 출동시켜 부식으로 맞서는 학생들과 대치, 학생측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오후 학생 약 6백명이 경찰서 1개소를 습격, 기물을 파괴 경찰버스를 전복시켰다. 이에 계엄사령부는 오후 4시경 공수부대를 주축으로 한 수천명의 군을 투입 무자비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진압했다. 학생데모에 냉담한 반응을 보여왔던 시민들도 분개하여 이날 처음으로 데모에 참석, 데모는 눈에 띄게 격화되었다. 계엄사령부는 광주시 일원에 야간통행금지 시간을 3시간 앞당겨 오후 9시부터 실시했다.

5월 19일

오전 11시경부터 전남대학교 학생과 이에 합류한 시민, 1500명을 헤아리는 데모대가 도청을 향하여 행진, 이를 막는 군, 경찰과 충돌하였다. 오후 2시 반경 데모대들은 "비상계엄령의 즉각해제", "김대중씨의 석방" 등을 요구하면서 데모를 시작하자 광주고고등 3개 고등학교에서 1천여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데모에 참가하였다. 데모대들은 지금까지 사실보도를 외면해온 문화방송국을 점거, 동 방송국 차량 7대를 불태우고 군의 접근을 저지하기 위하여 입구에 방화하고 바리케이드를 쳤다. 동시에 동아일보 광주지국에도 방화했다. 이 데모로 인한 충돌에서 한명의 어린이가 군의 장갑차에 깔려 사망하고, 500명 이상이 체포되었다.

5월 20일

이날 아침 시내의 중요한 도로의 봉쇄는 해제되었으나 데모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시내의 각 요소 요소에는 공수부대와 경찰기동대가 경비하고 있었으며, 군 헬리콥터가 시 상공을 순회, 삼엄한 분위기였다. 오후 2시경 택시와 버스를 앞세운 데모대가 계엄군 저지선과 충돌, 많은 부상자를 발생, 군인들에 붙잡힌 학생들은 근봉으로 무수히 구약당했다.

저녁에는 10만에 이르는 시민, 학생이 데모를 계속했다. 약 9시경 동포들의 시체를 리야카에 실은 데모대들은 KBS 와 MBC 를 습격, 불질렀다. 한편 이와 같은 반정부 데모는 전라북도 전주시에서도 일어나 약 4만여명이 가두 데모를 벌였다.

한편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비상계엄령 전국확대를 비난하는 담화문을 발표, 정부와 계엄군을 비판했다. 대법원에서는 박정희 저격사건을 주도한 김재규 전중앙정보부장등의 상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함으로써 김재규 사형, 김계원 무기징역을 확정, 그 외에 4명도 원심대로 사형언도를 확정시켰다. 이날 신현확 내각은 데모자: 관련한 소요에 대한 문책으로 총사퇴했다. (참고신문: 오미우티신문, FAZ. sÜddeutsche Zeitung(SZ)).

### 5 월 21 일

석가의 탄일인 이날 광주시민의 항거는 한층 더 격렬해져 정오경에는 20만명을 헤아리는 시민, 학생,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공수특전대를 주축으로 한 15 000 여명의 계엄군과 대치, 생사불 건 전투를 벌렸다.

총여 대검을 쏘고 남녀노소를 불문 닦치는 데로 차고, 때리고 찌르며 광주시민의 평화로운 정치시위를 제압하려는 공수특전대원들의 잔악무도한 행동에 분개한 시민들은 자기방어의 수단으로 "광주교외의 한피출소를 습격, 소총, 활약, 수류탄, 기관총 등의 무기를 빼앗았다. 그들은 기관총을 전남의 대 부속병원 옥상에 설치, 데모진압을 위해 투입된 공수특전대원들에게 발사, 병원주변은 격렬한 전투장으로 변했다." ( SZ의 5월 22 일)

또 다른 시위군중들은 광주교외에 있는 한 군수공장을 급습, 여력대의 장갑차와 군용차량을 빼앗아 시내로 몰고 들어와 군인들과 대치 하였다.

계엄사령부는 이날 현재 데모군중이 광주시 및 주변지구의 경찰서 무기고에서 각종 총기 3 503 정, 실탄 46 400 발을 비롯하여 수백대의 군용 차량과 백스동을 빼앗아 갔다고 공식발표 하였다.

"광주시 인구의 1/7 에 가까운 10 만여명의 시민들은 " ( SZ의 5 월 22 일)

이와 같이 탈취한 군용무기외에 곡물, 돌, 죽창, 철봉 등으로 무장, 군인들과 시가전을 벌려 광주시청을 점령하고 광주방송국의 13 개의 건물을 방화, 파괴 하였다. 사략가 다급 해지자 "도청과 경찰관부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광주시를 빠져 나갔다" 계엄사령부는 이날의 총돌로 시민 한명을 포함 모두 6 명의 사망자가 났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적어도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난것으로 알려 졌다. (광주 기독교병원에서만도 11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

한편 일부 학생들은 빼앗은 백스를 타고 군대의 저지선을 뚫고 목포, 나주, 화순등 인접도시로 진출 계엄군의 잔인성을 폭로 하였다. 한편 김대중의 고향인 목포에서도 1 - 2 만여명의 시민들이 군경과 충돌 하였다.

이와 같은 사략의 긴박성에 당황한 계엄사령관 이희성은 사략진압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광주로 내려 갔다.

최규하는 신현확내각이 총사퇴한 다음날인 이날 전직 부총리이며 경제기획원 장관인 박충혼을 신임총리에 임명했다. 그는 조각을 받은 지

먼시간 내이윤고부 장관, 법무부 장관의 경질외에 구내각에 비해 특별히 감독 할 만한 변동이 없는 새내각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날 현재 광주로 통하는 모든 도로는 차단되고 통신은 두절되었으며 광주시의 모든 텔레비, 라디오 방송은 중지, 광주시는 사실상 외부로부터 완전 고립되었다.

(참고신문: S. K. F. A. R. FR. 日本 매일신문 5월 22일)

5월 22일

대모대의 완강한 저항에 부닥치자 계엄군과 경찰은 일단 시외곽으로 철수, 광주시를 가운데 두고 포위망을 구축했다. 시내도 언젠가는 교통과 통신은 일체 차단되고, 비상공으로부터 항거시민에게 귀가를 종용하는 경고전단이 뿌려졌다. 시위는 그 규모가 계속 확대되어 헬리콥터에까지 대공사격이 가해졌다. 시 중심부의 모든 공공건물은 대모대의 수중에 들어갔고 고위 여기저기서 산발적인 총격전이 벌어졌다.  
반정부시위는 이날을 계기로 광주시 인근의 16개 도시로 확대되어나가 전남남도 전체가 시위군중의 전열에 가담하는 인상을 주었다. 김대중씨의 고향인 목포역서도 경찰서가 대모대들에 의해 점령되었다.  
계엄사령부는 이날 김대중씨에 대한 수사중간발표를 하면서 그가 학생들의 반정부대모를 배후에서 조종, 선동하고, 자금지원까지 했다고 못박았다.  
박충훈 신임총리가 사배수습차 광주로 내려갔으나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했다. 광주시민은 광주부시장, 변호사, 의사 그리고 학생들로 구성된 사배수습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배해결의 전제조건으로 김대중씨를 비롯한 야당 인사의 석방, 군과 경찰의 지속적인 투입금지등 7개항목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생들의 요구중엔 사배정상화이후 대모주동자들에게 대해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것도 들어 있었다. 계엄군당국은 이들 시민대책위원회의 및 학생들의 요구중 몇개 항목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다. 일본 고도통신은 이날 최소한 60 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5월 23일

이날 처음으로 대모대원들 사이에 사배진전문제를 두고 의견이 충돌되기 시작했다. 일부의 소위 온건파 사람들은 사배해결의 일환으로 일단 말쑥한 무기를 반납하자고 주장, 600 - 700 정을 총기집합장소로 모았다. 그러나 강경파측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무장할 것을 의심하였고 계엄군에 대한 경계를 오히려 강화했다.  
계엄사령관 이희성이 직접 헬리콥터를 타고 광주시 상공을 순회하면서 전단을 뿌려댔다.  
그는 이 전단에서 총기와 탄약, 그리고 폭약을 소지한 사람은 가차없이 총살하겠다고 위협했다.  
오전 10 시경 계엄군 특수부대가 전격적으로 투입되어 강경파 시위자 24 명을 사살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시민들에게 무기를 포기할 것을 종용하

면서 질서회복에 들어갔다. 데모대들에 의해 점령되고 있는 도청의 업무가 대책위원회 사람들에게 의해 일부 재개되었고, 두 개의 피출소로 치안 업무를 시작했다.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날까지 모두 133 명의 사망자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김영삼 신민당당수가 이날 처음으로 광주 사태에 대해 언급, 정부와 시위자들에게 "더 이상의 유혈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망치게 하는 것" 이라고 말하면서 "계엄령의 확대강화는 국가전복과 같은 무력행위" 라고 비난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한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현사태는 북한의 조종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군부파쇼주의자들에 의해 자초된 것" 이라고 말했다.

### 5 월 24 일

대부분의 시민들이 외출을 피해 이날 광주시가는 평온한 인상마저 주었다. 계엄사령부는 방송을 통해 전날까지 약 3천정의 무기가 회수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데모대중강경위는 계속 무기반납에 응하지 않고 계엄군의 진격에 대비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계엄당국과 접촉을 계속, 사태수습이후 당국이 데모군중들에 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얻어 내고, 군은 그동안 그들의 데모진압책도가 과잉적이었음을 인정했다. 계엄당국은 이같은 와중에도 독재자 박정희를 사살한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4 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 5 월 25 일

데모대 내부의 의견대립은 급기야 무력충돌로까지 번져 이날 새벽 처음으로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총질이 벌어졌다.

정태채 전남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도민수습대책위원회가 별도로 발족되었다고 발표되었다. 계엄당국은 이 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무기 회수, 부상자 간호,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기관의 복구사업업무가 실시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오전 11 시부여 있을 예정이던 시민합동장례식이 돌연 연기되고, 오후엔 최규하 대통령이 직접 현지로 내려가 사태수습을 시도했다. 정부는 이날 주한 각국 대사관에 광주 및 목포에 체류하고 있는 자기 나라 사람들을 조속히 퇴거시키라고 통보했다. 계엄사령부는 텔레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성명을 발표,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들과 광주시의 질서회복을 위해 계엄군의 조속한 개입이 요구된다"고 말함으로써 가까운 시일안에 군이 진격해 들어갈것을 암시 했다. 계엄사는 이어 이번 사태는 북한이 선동했고 간첩의 도움으로 광주를 그들의 계엄라작전거점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저녁이 가까와 오면서 광주시 주변은 장갑차와 군병력의 계속적인 증강으로 삼엄한 분위기로 화했다. 밤 10 시 최규하는 라디오와 텔레비 방송을 통해 특별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계엄군의 광주시 돌입을 예

고 하는 최후용첩을 냈다. 한편 미국무성 대변인 로딩 카터는 미국이 계속 한국 사태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하고, 북한이 현재로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긴 하지만, 오판으로 인해 한반도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 질서가 회복되는 대로 국제각층의 사람들에 의해 민주정부의 수립을 위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월 26일

계엄군은 그들의 광주시포위망을 3 km 전진시키고, 병력 역시 더 한층 강화시켰다. 시외곽 몇몇 곳에 군인들의 진지가 구축되고 있는 동안 광주군 군교의 촌락들이 대포대들의 손에 넘어갔다. 양측은 서로 다투어 참호를 구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특별전화를 통해 협상을 계속했다. 대치선을 사이에 두고 간간히 들러오는 총성들이 협상을 방해하곤 했다. 서방기자들의 눈엔 포위망에 갇힌 광주시민들의 모습이 단순한 폭도들이 아닌, 80만 전 시민이 일치단결하여 혁명정신 아래 싸우고 있는 민주항쟁으로 보였다. 시민들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바깥 세계로부터 차단되어 있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돌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바깥에 알려 주시오. 우리 모두 일치단결해 있고, 모든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지 군사독재의 종말이라는 것일....."

한편 도청건물에서는 15명으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원회가 모임을 가졌다. 이준기 전부시장, 일제때 독립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채항영씨, 전라도 대주교, YWCA 대표 및 변호사등으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원회는 4가지 온건한 요구사항을 마련, 이 요구사항을 계엄사가 수락할 경우, 광주시는 무기를 다시 회수할 용의가 되어있다고 통고했다.

요구조건의 내용은 1) 사망자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대한 당국의 신변안전보장, 2) 공산주의자로 간주되는 자를 제외한 모든 구속된 학생들의 석방, 3) 사망자 / 가족과 파괴된 가족들의 복구를 위한 재정적 지원, 4) 광주시 항쟁을 "반란"으로 규정, 징벌하지 말것 등이었다.

시민대책위원회의 이같은 요구사항은 "정치적인 문제들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우선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광주시에 정상적인 시민생활이 회복될 수 있는 보장을 받는 것" (이준기 전부시장의 성명내용)이라는 입장에 기초하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등 위원회에 소속된 학생위원회 대표들은 그들이 이미 제시한 1) 김대중씨 석방, 2) 계엄령 철폐, 3) 전두환의 퇴진, 4) 구속된 학생의 석방등 근본적인 요구조건의 관철을 주장했다. 학생들과 도청앞에 광장에 온집한 시민들은 시민대책위원회에 온건한 요구사항에 만족해 하지 않았다.

군부가 제시한 후황의 시한은 12시 였으나 협상은 지연되기만 했다. 그러나 12시 20분까지 무기의 90%가 이미 회수되었고, 거리를 달리는 짚이나 트럭들엔 무장을 해제한 학생과 시민들이 타고 있었다.

밤이 찾아오자 거리는 초조한 긴장감으로 팽배했다. 군부에 의해 외출이 완전히 금지되어 바깥에 나서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격이 가해졌다.

하룻밤 내내 간헐적으로 총성이 들려왔다. "얼마나 오랫동안 군부가 조용히 있어 줄 것인가?" 이것만이 유일하게 남은 질문이었지만 대부분의 관측자들은 "군부가 결코 정치적으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곧 데모대를 공격, 진압해 버릴 것이라는 데 의심이 갖지 않았다. 광주 시민들은 최악의 사태를 감수하고자 하는 듯 보였다. 피의 희생은 너무나 엄청났다. 거리마다 시체들이 나뭇그림자 있었고, 그중의 많은 것들은 일그러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조차 어려웠다. 무기고연 아직 얼마간의 무기가 있었지만 그 정도의 무기로는 계엄군의 엄청난 화력앞에 별다른 저항을 계속할 수 없었으리라는 것도 명백했다.

최규하는, 마지막으로 데모대들에게 투항하면 관용을 베풀겠다고 피육책을 썼고 학생들에게 무기를 놓고 귀가하기를 종용했으며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 뒤에 오는 결과에 대해선 일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최후의 협박과 공갈을 하였다.

5월 27일

민주 시민들의 무장항쟁은 처절하게 진압되고 말았다. 투항을 종용하는 최후통첩시한이 0시를 기해 만료되었다. 두시간쯤 지난 새벽 2시, 계엄군은 시민대책위원회에 전화를 통해 항복을 강요하는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 그로부터 1시간 반이 지난 3시 30분, 17,000 명의 공수특전단은 새벽안개를 틈타 헬리콥터, 장갑차 등을 동원, 번개처럼 신속히 시중심부를 덮쳤다. 학생들에 의해 작전본부로 이용되고 있던 도청 옥상스피커로부터 전시민의 지원을 호소하는 마지막 목소리가 새벽하늘에 울려 퍼졌다.

"계엄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감한 시민들이여, 우리를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들 학생들의 마지막 애국적 절규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집안에 머물렀을 뿐이다.

6시, 2시간 반에 걸친 치열한 시가전끝에 계엄군은 전시를 피바다로 만들어 손아귀에 넣는데 이르렀다. 가장 치열한 전투가 광주공원을 중심으로 벌어졌다. 일부 시민들은 이곳에 토치카를 파고, 기관총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마지막 항전을 벌였으나 이것도 막강한 계엄군의 화력앞에 어찌해볼 도리없이 30 여분만에 제압되고 말았다.

서울의 계엄사령부는 이날 새벽의 마지막 전투에서 학생 17명, 군인 2명이 죽었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또 학생들에 의해 주도된 반정부덕포로 18일 이래 127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의 희생자 수는 150명 (*Die Welt* 지, 5월 28일)에서 600명 (*Süddeutsche Zeitung*, 5월 28일)에 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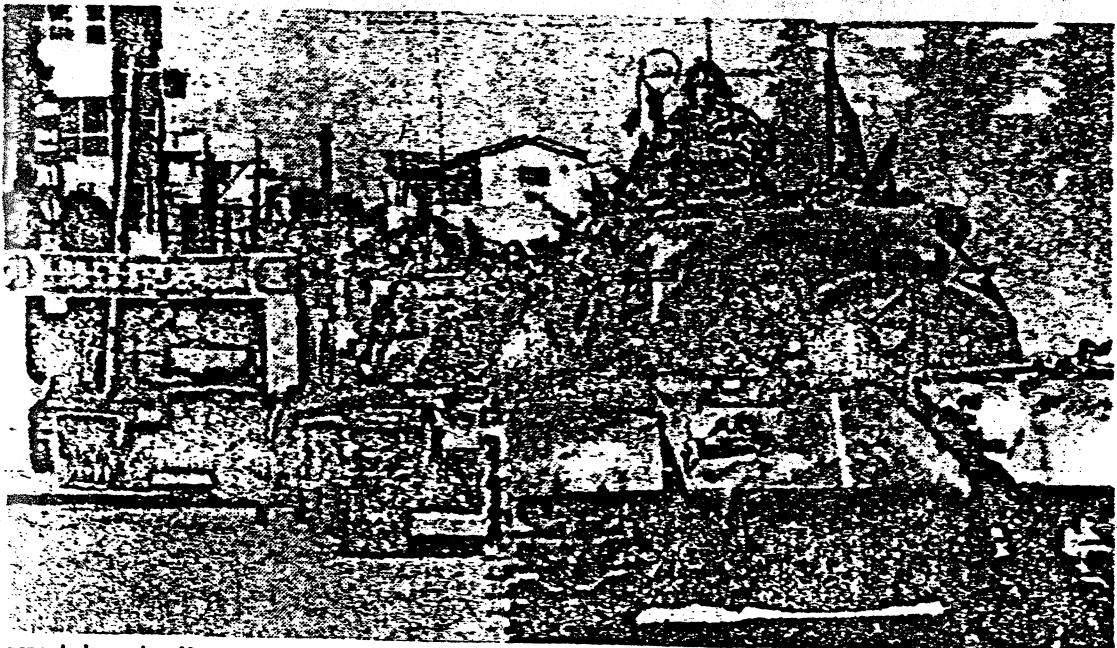
계엄군은 "점점 심각해 가고 있는 식량 및 생필품의 부족과 이에 따른 80만 광주 시민의 긴급한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라고 주장하면서 헬리콥터, 탱크 등을 동원했던 그들의 무자비한 탄압관행을 정당화시키려 했다.

이날 라디오에서는 종일도록 군악이 흘러나왔다. 관청의 공무원들과 경찰관들은 아침 7시 30분 그들의 정상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어느 서방외교관의 표현대로 "군부는 이제 증거를 가져왔지만, 결코 짐서름 찾은 것은 아니었다."



元帥軍を倒した翌日、射殺した反乱兵市民の遺体を運び出す軍隊 (AP一兵隊) 兵



anzer beherrschen Kwangjus Straßen

Agfrahene: AP

# 사건일지 (광주의거 진압후)

5 월 28 일

- 계엄군은 광주시내를 샅샅이 뒤져 대모주동자, 소위 「과외분자」 색출에 열안이 되다.
- 광주시내 요소에 장갑차와 무장군이 배치되다.
- 계엄군과 경찰은 그들이 저질은 만행의 흔적을 감히 없애기 위해 대대적인 청소작업에 나섰다.
- 정보부는 사복광산 소요사태와 관련된 주동광부 25명과 공금횡령혐의로 광산노조 사복지부장 이재기를 체포
- 미국이 한국에 국련다수의 기반위예산 민간정부의 수립을 촉구하다.
- 재택팀 예국교포들 광주시민과 일대하며 전두환군부에 항의하는 단식투쟁에 돌입

5 월 29 일

- 목포에서 「계엄해제」, 「전두환군부 퇴진」을 요구하는 데모가 계속되다. 참가자 2만명
- 전두환일당 정권찬탈의 수단으로 5.16 당시와 마찬가지로 집단기구설치 모색
- 서독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에서 교포 35명이 광주사태에 항의, 무제한 단식투쟁에 돌입
- 중공수상, 일본방문도중 광주사태와 관련해 이북의 남침가능성 부인

5 월 30 일

- 미국측 한국군부의 잔인성과 비협조적 태도를 「공식비판」
- 서울 기독교회관 7층에서 서강대 4년생 김의기군군 부독재탄압에 항의, 투신자살하다.
- 백팀 예국교포 500여명 광주시민을 대량 학살한 전두환군부를 성토힌하는 가두시위를 벌임.

5 월 31 일

- 정부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공표
- 서독 본에서 400여명의 교포들이 광주사태에서 저지른 군부만행과 전두환을 중심으로한 유신잔당 성토힌 시위를 벌임

6 월 1 일

- 미.대통령 「지머.카터」는 인권탄압에도 불구하고

-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을 계속 지지한다고 발표함
- 새이셀(Die Seychellen)국 광주시민대량학살을 이유로 한국과 국교단절을 발표함

6 월 2 일

- 계엄사, 광주사태 진상조사서 발표  
군대의 잔인성과 고의적인 시민대량학살에 대해서는 일  
언판구도 없고 광주시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  
계엄당국은 사망자 170명중 민간인 144, 군인  
22, 경찰 4명이라고 숫자를 삭감해 허위 발표.  
실제의 사망자수는 1000명 이상임
- 허위보도들 구실로 일본 교도통신 서울지국을 폐쇄

6 월 3 일

- 전두환군부 국회의 헌법제정권 박탈. 국회참가없이 헌  
법초안 마련방침 새움
- 주한미대사 야당지도자 체포, 국회기능정지, 일체의 정  
치활동금지 등에 대해 한국군부에 「항의」함
- 서독 정권당인 사회민주당 한국정부의 인권탄압과 광주  
시민학살을 비난함
- 동원한좌 사복당업소 소요사건과 관련, 동원한좌 개  
발주식회사 사장은 공금유용 혐의로, 노조간부 3명  
은 배후조정 혐의로 구속됨. 이는 조직적 노동운동  
의 탄압의 일환임.

6 월 4 일

- 정부는 광주의거 이후의 민심수습을 위해 부정공무원  
을 단속한다고 발표
- 정부는 광주시민을 대량학살해 놓고 마치 수재민을 다  
루듯 광주시민의 마음을 「위로」하자고 호소함

6 월 5 일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제하는 「상임위원회」위원  
30명 임명 (군장성 18명, 고급공무원 12명). 전두  
환이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됨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현판식 거행
- 광주사태 민간인 사망자 명단 발표 사망자 4명 추가
- 계엄사, 서울 및 광주 학생데모주동자 21명을 지  
명수배. 이들은 모두 반독재, 반유신투쟁한 학생들임
- 광주사태의 사실보도들 유언비어라 낙연 적음.  
유언비어의 예를 발표

6 월 6 일

- 정부, 국회 참가없이 헌법초안을 작성 하여 9월중순 국민투표에 부칠예정이라 발표
- 정부는 광주사태 사망자, 부상자에게 위로금지금 결정 (사망엔 420만원, 반신불수 부상자엔 300만원) 하여 물질적인 호의로 그들의 악독함을 은폐하고 헌법수습을 획책함

6 월 7 일

- 군부는 헌법수습으로 장기집권을 하기 위해 「권력형 독재」 일소의 대대적 정화작업에 착수

6 월 8 일

- 계열사는 광주사태를 공정하게 보도하려 노력한 경향신문사등의 기자 8명을 「유신백어유포럼의」로 구속
- 김종필 유신잔당의 총재 석방

6 월 9 일

- 지난 3주간 서울에서만 150명 이상의 교수, 학생, 성직자, 정치가, 변호사등 반독재투사가 체포됨. 400명 이상의 민주연사가 피신. 지방에서도 수백명의 연사들이 지하로 숨었음 (6월9일자 Süddeutsche Zeitung)



# 현장 목격담

다음은 Süddeutsche Zeitung 기자 Gebhard Hielscher가  
민중봉기의 소용돌이로 휩쓸린 광주시를 돌아보면서 역사의  
현장을 기록한 생생한 목격담이다.

5월 26일 아침 나는 자전거를 빌려 타고 광주시에서 12km  
떨어진 지방도시 화순을 출발했다. 광주로 이어지는 길은  
차량통행이 막혀져 사람들은 걸어서, 자전거를 타고, 더러는  
오도바이를 타고 가기도 했다.

젊은이들, 아이들 등에 업은 아낙네들, 긴 치마를 입은 할머니  
들, 장대에 물건을 매달고 힘들게 걸어가는 김복은 일꾼의  
남자들, 넓다란 밑집모자를 눌러쓴 농부들, 거리는 마치 지리  
코파서에 나타나는 어느나라 문화소개의 한색갈사친 모습과도 같  
았다.

턴벨을 지내면서 조용한 시골의 낭만적인 풍경은 자취를 감추  
고, 곧타버린 화물자동차 한대가 거리를 막고 나자막져 있어  
전장의 모습을 실감시켜 주기 시작했다. 길가 물고랑에는 한  
대의 쟁차가 전복되어 누어있다. 저만큼 길한북한엔 파커된  
시내버스들이 두줄로 길을 차단하고, 유리창 한쪽엔 붉은색갈  
의 붓글씨로 「전두환을 찢어죽여라!」라고 금지막하게 쓴 플라  
카드가 붙어있었다. 시내중심에서 4Km쯤 떨어진 곳에서 처  
음으로 볼만한 파출소가 나타났다. 차도는 이따금 자전거를 타  
고 오고 가는 것 말고는 아주 한산했고, 상점은 거의가 철책을  
내리고 있었다. 경찰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무질서하더  
는 인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부녀자들이 자그마한 진열  
대를 차려놓고 파일과 채소등을 팔고 있었다. 전남매일신문  
사는 철문으로 굳게 닫혀있고 유리창이 여기 저기 깨어져 있  
었다. KBS 국영방송국 광주지국과 문화방송 건물이 광그리볼  
란재 잔해한 남겨 있었다. 「저 방송국들은 광주에서 무슨 일  
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로 하여  
금 분노를 갖게 했다.」고 한 나이 적은 시민이 말해 주었다.  
하얀 색깔로 말쑥히 단장된 전남도청건물은 그 소용돌이 속에  
서도 파커를 면했다. 도청앞 광장엔 여기 저기서 빼앗은 무  
기와 경찰차로 무장한 데모대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한 모  
퉁이를 지나니 검은색의 피수수송용 차량이 서있고, 그 주변  
엔 칼빈총, 쟁차, 그리고 중세기애나 볼수 있는 헬멧을 뒤  
집어 쓴 사람들로 섬적한 기분을 일으켜 주었다. 도청출입  
문엔 몇몇 젊은이들이 지켜서서 길게 장사진을 치고, 서서 기  
다리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들여 보내고 있었다. 사람들은 도  
청 뒷마당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엔 13개의 나무로 된, 판이늘

어 있었다. 이들은 총에 맞거나 얻어맞아 죽은 사람들로써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시체들이었다. 부업들과 남자들이 흐  
느껴 울면서 관을 디듬고 있었다. 도청청사 맞은편의 한  
작은 체육관에는 이미 신원이 확인된 60명의 사망자들 관  
이 준비하게 놓여있고, 그 가운데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었  
다. 관들은 모두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다, 그 위에 태  
극기가 놓여 있었다. 장례식 제단위에는 종이상자가 있고,  
그 속엔 조위금이 가득 채워 있었다.

한창년이 나무로 된 관을 부들켜 안고 동극하면서 「여기에 내  
동생이 들어있다. 어떻게 한국군이 이 한국인을 짝죽어느냐!」  
고 울부짖었다. 관에는 모두 릐호표가 붙어 있었고, 56,  
57, 58번 관에는 7살짜리 어린아이들 포함한 한가족이  
들어 있었다. 누군가가 한젊은이의 관위에 백합꽃 한뫼음을 얹  
어 놓았다. 한 여자상업고교생들이 한구석에 모여서서 죽어간  
같은반 친구들 슬피하며 이별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들의 노래는 울음으로 빌려져 되어 어리번이나 끊겼다.  
한 여학생이 들인 사람들을 향해 돌아서서 미리 준비한 호소  
문을 읽었다. 그는 「죽어간 친구 박근희양의 회생을 쫓아야 하  
지 말자!」고 소리쳤다.

이디선가 애국가가 시작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따라불  
렀다. 장내는 장엄한 분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대한민국 만세!」와 「민주주의 만세!」를 소리쳐 외쳤다.  
이날 저녁 나는 대학병원을 찾아갔다. 조선대학에서 공부들  
했고, 그곳에 많은 친구들 가지고 있다는 한 의사는 이원사  
태가 하나의 시민전쟁이라고 표현하면서 정말 끔찍한 사건이라  
고 말했다. 어쨌든 300여명의 부상자가 치료를 받고 있  
었는데 의국인인 내가 희생자들 볼수있게 된것은 의사들과 간  
호원들의 도움때문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같은 모습은 한  
국인의 치욕이라고 말했다. 한 용기있는 의사가 중상자들로  
가득 채워진 넓다란 방으로 나를 안내해주었다.  
머리에 관동상을 입은 사람, 눈을 찌른 사람, 두개골이 터진  
사람, 가슴에 총을 맞은 사람, 학재가 갈기갈기 찢긴 사람  
등, 응급실은 눈뜨고 볼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었다.  
이들 희생자들중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살아남을지 의심이다.  
광주시는 이시각에도 계속 군인들에 의해 포위망이 좁혀져 가  
고 있다. 시민대책위원회의 한 임원은 전두환이 물러날때까  
지 계속 싸우겠다고 비장해 했다. 사람들은 생활필수품의재  
고량으로 보아 한달은 버틸수 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엔 어떻  
게 할런지 압담해 하는것 같았다.

가능하다면 조속히 미국대사를 만나 현사태를 설명하고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일본의 매일신문도 지난 5월 25일자 기사에서 일본인 기술자 **보베 씨**(광주시 민봉기당시 전남방직광주공장기술지도원)의 반정부시위목적담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봉기가 시작된 18일 저녁 숙소에서 돌아와서 나는 학생을 중심으로 할 시민대모가 격화, 군대와 충돌로까지 발전되었음을 알게되었다. 대모대는 전남방직공장에 비치되어 있는 총 68정과 경찰파출소를 습격하여 빼앗은 권총등으로 무장, 군대와 총격전을 벌렸다. 군의 발포는 내가 보는 앞에서 되풀이 되었으며, 다리를 맞아 움직일수조차 없는 여성이나 노인들의 관자놀이에게까지 총구를 대고 사살하고, 심지어는 어린이를 안은 엄마를 향해 발포, 모자를 함께 죽이는 잔인성을 보였다. 적어도 수십명의 시민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나는 몸을 떨지 않을수 없었다. 군이 이처럼 무차별하게 학살하는데 대한 시민의 분노가 높아지면서 시위군중의 수는 날로 늘어갔다.

반정부시위 학생들은 공장내에 있는 우리숙소에서 함께 잠을 잤다. 인근에 살고 있는 기업주와 일반시민들이 버스와 자동차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물자를 시위대에 제공하고, 주부들까지 함께나와 협력, 광주는 온 시민이 일체가 되어 무장군인들과 대항하는 분위기였다. 공장숙소에서 나와 숙식을 같이 하던 학생들은 내가 일본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아주 호의적으로,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시위와 국제전화가 모두 끊어지고 가족과의 연락도 불가능하여 몹시 불안했다. 그러던차 25일밤, 광주시에서 가까운 경찰서에서부터 일본대사관원이 내력과 있으니 탈출하라는 연락이 왔다. 계엄군이 광주를 포위한 26일 오후 2시경 나는 도보로 공장숙소를 떠나 광주시외곽을 사이에 두고 북에는 계엄군, 남에는 대모대가 진을치고 있는 가운데, 계엄군 진영으로 넘어가 약 1시간 걸어서 광산경찰서에 도착, 대사관원과 만나게 되었다. 시민봉기가 이처럼 대규모화 된것은 군대의 무차별 살인이 시민들의 반정부의식을 극대화시킨데서 온것이라고 생각된다. 대모시민들은 이런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민들이 곧게 뚫어 단결해 있음으로 광주반정부시위가 그렇게 간단히 제압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 외국신문사설

한국민중은 그의 격동하는 근세사에서 늘 외세와 국내의 독재자에 대항하여 독립과 자결의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근의 투입으로 반압된 이번 광주 시민의기도 국내의 독재자 박정희가 암살된 후 다시 등장한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 항거해 일어난 민중봉기였다. 현 군사정권이 학생들에 의해 주도되어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확대된 광주시민항쟁을 북한에서 내뿜은 "간첩"이나 "친공적인 불순분자"의 책동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왜곡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한국군부의 그같은 시도는 악의에 찬 것이며, 그리고 모든 것을 희생시키더라도 집서와 안보만 성취되면 그것이 정치의 전부인양 생각하는 그들의 편협적인 태도를 숨김없이 보여준 좋은 예가 되고 있다. (S2. 1980. 5. 30)

광주 사태는 앞으로 닥아올 시기에 한국이 겪어야 할 우여곡절의 서곡이다. 한국사람들중 일부가 더 이상의 유혈참극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열망에 외면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계엄령과 군인들의 잔인한 만행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분노는 피비린내나는 광주유혈사태이후 피부로 느낄수 있을 정도로 높아졌다. (FR. 5.30)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번 사건은 파리공문을 연상시키는 것으로서, 거의은 시가 들고 일어난 반정부투쟁이다. 일본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국군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고, 그리고 한국에 민주화를 가져다 주는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 (호미우리신문, 일본, 5월 23일)

한국정부는 이번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 강화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적동향을 그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북조선은 밖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한국내정애의 관여를 일체 부정하고 있으며, 국제정세도 또 지난 30년간 크게 달라졌다. 그와 같은 위기의식은 시대착오적이며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경제심만을 가져다 주게 된다. (마이니찌신문, 일본, 5월 26일)

"간첩의 선동"이나 "외부에서 온 불순분자"에 의해 광주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계엄당국은 허위보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태의 동향을 올바르게 파악하려는 자세라고 볼수 없다. 민주화를 바라는 민의를 무력으로 억눌러 보려고 하면 혼란만을 심화시킬뿐이다. 그것은 또 역사의 수레바퀴를 꺼꾸로 돌려보려는 시도이며 한국민의 지금까지 기울어 온 노력을 수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아사히신문, 일본, 5월 28일)

이번 사건은 작년 말부터 겨우 진행되기 시작한 민주화애로의 길이 또 다시 군부애 의해 봉쇄되어 어두운 군정시대로 역행하는 데 대한 광범한 저항운동이었다. 민주화애로의 정치 발전을 바라는 것은 한국국민 전체의 민의이며 군정애로의 역류는 군부이외애 그 누구도 바라지 않고있다. 이번 시민들의 태도는 광주시와 그 부근에서 만으로 끝났지만 앞으로 다른 지방에서 반정부, 반군부 감정이 폭발하지 않을 것임은 보장은 없다. (상계이신문, 일본, 5월 28일)

광주시민들의 민주항쟁이 군의 무자비한 탄압에 의해 비극적인 종말을 보던 날 독일의 몇몇 신문들은 이번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거족적인 시위로 발전하지 못하고 전라남도와 전북의 일부지역에서만 호응을 얻는데 그치게 된 것에 대해 그들 나름대로 몇가지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프랑크푸르트 톤트샤우 신문의 27,28일자 원인분석을 초역하여 아래에 옮겨본다.

광주시 자유의 전사들은 결국 그들의 투쟁을 그들만의 외로운 비극으로 끝내고 말았다. 여기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이들이 다른지방 사람들로부러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데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 사람들의 그같은 방관적인 태도는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경원적인 태도에서 설명된다고 한다. 분명히 납득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한국사람들이 막연한 기분에서 나오는 이유로해서 전라도 주민들을 이등국민 내지, 심지어는 "한국의 흑인으로까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한반도는 중앙정부에 대한 봉기나 항거가 있을 경우엔 개개가 이곳 주민들이 선봉에 섰던 역사를 갖고 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서울시민들이 이번 사건에서 비교적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것은 그들의 약삭빠른 처세관에도 연유한 것이다. 서울은 물질적인 부에 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곳이고, 그래서 이곳에 모여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남쪽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가 오히려 그들의 세속적인 안락의 추구에 방해되는 요소로 받아들여 졌다. 또다른 한가지 이유는 군부가 늘 그랬왔 듯이 이번사건을 철저한 언론통제에 의해 왜곡 보도 했다는 데 있다. 군은 광주시민봉기가 일부 "불순세력"과 북한의 조종 및 선동에 의해 발생한것 처럼 선전해댔다. 30여년간 반공교육으로 세뇌되어온 한국국민들에게 공산주의자들과 관련된 일이라면 아예 외면해 버리는 버릇이 붙어 버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군에 의해 고모히 조작된 신문, 방송들의 보도를 별다른 비판없이 사실로서 받아들였다.

그러나 진실은 오래 숨겨질수 없는 것이어서, 이제 서서히 이입을 거쳐 저입으로 많은 사건의 진상들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그리고 진실앞에 외면하기 부끄러워 하는 사람들은 종이쪽지에 열심히 몇자씩 적어 광주에서 정말로 무슨일이 일어났는가를 바깥세계에 전달해 주었다. 서울의 한 교외목사는 예배시간을 이용하여 전라도 지방의 사람들이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싸우다 죽어 갔는가를 자세하게 알려주었다. 삼엄한 경계속에서도 서울에서 새차택나 데모가 기도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로 돌아가고, 주동자들은 모조리 체포되었다. 서울에서는 지금 오만가지 소문이 만발하고 있다. 전두환의 독주(獨走)에 불만을 갖고 있는 군내부의 일부세력이 다음번 박자로 등장하여 전두환세력을 치리라는 소문도 자자하다. 광주사태가 있고나서 이제 한국에선 무엇하나 볼가 능한것이 없게 되었다.

# 군부의 잔인성

보라, 군인들의 이 잔인성을 !!

"전이라는 여신생이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편지 하나를 전해 주면서 그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온석지에 알려달라고 부탁 하였다(4R.5월 27일자). 그편지 속에는 5월 18일 오후 데모 진압을 위해 투입된 공수 특전대 무리들이 18, 19, 20일 3일간 광주에서 자행한 온갖 만행이 적혀 있었다.

이글을 읽는 독자 중에는 "너희는 왜 한국 사람으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이야기들을 자꾸들추어 내리 하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공수특전대원들이 광주에서 저질렀다는 잔인하고 소름끼치는 여러 이야기들,...

만약 그들의 잔악한 행위들이 한낱 순간적 감정에서 나온 실수였다면, 그들의 잔인스런 만행속에 한조각 인간적 양심이라도 볼수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들의 실수라 믿고 수치스럽고 쓰라린 상처를 조용히 감추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수부대 무리들이 광주에서 저지른 잔인한 만행들은 전두환 일당이 미국의 동조내지 묵인하에 정권 할취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낸 치밀한 과본에 의해 이루어진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광주 양민 학살사건" 이었으며, 그방법도 역사에 유례를 찾아 볼수 없을만큼 비열하고 잔인한 것이었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지식, 형제 또는 친지로 볼수도 없고 그들의 잔인한 행동을 결코 만큼도 용서 할수가 없다. 그들은 이성도 감정도 없는 잔인한 괴물들이요 정권 야욕에 미쳐 날뛰는 상관의 명령이라면 언젠가 우리를 핵으로 깔아 죽이고, 우리의 머리를 총 개머리로 짓 이기고, 우리의 젖가슴을 도려내고, 우리의 목에 대검을 꽂을 우리의 원수들 이다. 때문에 "전두환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라" (5.28.5월 28일)는 광주 시민들의 피 맺힌 호소가 실현될때 까지, 명령 복종이라는 미명아래 온갖 만행을 자행한 공수부대의 잔인한 짐승들이 멸종될때 까지 우리는 그들이 우리부모, 형제, 친지들에게 저질렀던 온갖 만행을 씹고 되씹으며 분노와 복수의 불을 태워야 할 것이다.

광주의 형제들이 외치며 죽어가던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가" 실현될 때 까지 !!!

1. 이번 광주 시민 항거의 주축을 이루었던, 때문에 이사건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듣고, 체험한 광주 조선대학 학생들은 그들의 5월 22일자 성명서에서 공수특전대원들의 잔인성을 다음과같이 묘사하고 있다.  
"서울에서 급파된 3000여명의 공수 특전 대들은, 대검을 빼어들고 미친 망난이 처럼 호박을 기르듯이 닦치는 대로 짙럭 짙럭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시체들을 군 트럭에다 내어 던지고, 그것도 부족하여 달아나는 시민들과 어린 여학생들을 대문까지 부수고 끌어내어, 시민이 보는 앞에서 대검으로 난자 하였다".  
그들은 "손녀같은 여학생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고 공수부대 대원의 면살을 잡는 70노파의 몸을 칼로 난자하여" 죽였고 "남학생들에게 돌을 날라 주었다는 여학생을 대낮에 시민이 보는 앞에서 대검으로 난자 하였고, 피를 보고 울부짖는 시민을 향하여, 공수부대는 피묻은 칼을 흔들며 대며 죽이겠다고 소리쳤다." "피를 흘리는 여학생들을 시민들이 병원으로 옮겨 응급처리를 받게하자, 공수부대는 병원까지 뛰어들어 간호원을 구박하고 기물을 약탈 함으로 씩, 치료까지 불가능하게 하였다." (조선대학생 성명서, 5월22일)

3. Frankfurter Rundschau 한국 특파원인 Peter Crome 에게 전해진 전이라는 여선생의 편지속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담겨있다:  
 "19일 아침 대학교수인 나의 아버지는 군인들이 부상당한 시민, 학생들을 이층집 지붕에서 거리로 집어던지는 것을 목격하셨고, 거의 같은 시각에 나의 어머니는 조흥은행 광주지점에서 군인들이 대모대의 한 젊은이의 머리를 총 개머리로 때려 깨진 머리속에서 골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  
 (FR. 5월 27일)
3. 5월 26일, 자전거를 타고 광주 시내로 몰래 잠입, 한 의사의 호의로 조선대학 부속 병원을 방문한 Süddeutsche Zeitung 한국 특파원 Gfhard Kullocher 는 중환자 병실에 다음과 같은 가지가지의 환자들이 죽음을 기다리며 누워 있다고 썼다:  
 "머리는 관통상을 입은 사람, 눈이 총을 맞은 사람, 두개골이 산산 조각이 난 사람, 흉부에 또는 명치에 총을 맞은 사람, 오줌통이 갈기 갈기 찢어진 사람."  
 (SZ. 5월 28일)
4. 광주사건 당시 전남 방직 공주공장 기술 지도원으로 광주에 머무르고 있던 일본인 기술자 **후미** 씨는 자신의 극구담을 일본 매일신문에 (5월 25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군의 발포는 내가 보는 앞에서도 되풀이 되었으며, 다리에 총을 맞아 움직일 수 없는 여성이나 노인들의 관자놀이에 총을 쏘아 사살하고, 심지어는 어린이를 안은 엄마를 향해 발포, 모자를 함께 죽이는 잔인성을 보였다."  
 (일본 매일신문, 5월 25일)
5. 독일의 일간지 Die Zeit 지는 6월 6일자 보도에서 공수 특전대원들의 잔인성을 다음과 같이 회상 하였다:  
 "5월 18일 전투관계 의해 광주에 투입된 공수 대원들은 군 화발로 차고 총 개머리로 때리고 대검으로 찌르며 테러를 자행하였다. 그들은 시위 군중을 때려 입어서지도 못하게 만들었으며 시민들을 대검으로 찔러 죽이고 부상자들을 응급치료실 까지 쫓아가 끌어냈으며 부인들과 처녀들을 대로상에서 발가 벗겼다. 한 어고 교장은 분노에 떨며 이 공수부대놈들은 1950년 한국을 침범했던 공산군 들 보다도 더 잔악하다고 말했다."
6. 독일 사회 민주당의 기관지 Vorwärts 지는 6월 5일자 판에: "공수 부대원들은 대로에서 여대생들의 옷을 발가 벗겨 대검으로 찔러 죽이고 그들 몇명의 유방을 대검으로 도려 내었다. 또한 그들은 부상자들을 수술대에서 끌어내려 창문 밖으로 집어 던졌다." 거의 비슷한 기사가 독일의 유명 주간지 "Spiegel" 의 6월 2일자 보도에도 실려있다.
7. 일본 카토리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심로 믿어지지 않는 공수 특전대의 만행을 폭로하고 있다:  
 "산월이 다 된 임신한 여성의 배를 가르고 내장이 나오자 다시 대검으로 자궁을 가르고 해아를 꺼내서 그 해아로 아직 핏줄 거리는 여자의 얼굴을 내력 쳤다. 이 사실은 수명의 목격자가 생존하여 증언하고 있다. 즉 군인들은 임신한 여성을 끌어다 놓고 그 배속에 무엇이 들었냐고 물었다 한다. 여자가 아무

대답도 못하자 군인은 "배속의 아이가 사내냐 계집아이나"고 물었다.  
그러나 여자는 "나는 모르겠다"고 말하자 군인들은 "그러면 배속을 열고 보자"  
하며 칼로 배를 찢었다. 이 사실은 광주에서 일본에 몰래 보내온 카세트에 들어  
있었다." (캐나다에서 발간되는 한국인 신문 "뉴 코리아 타임스" 6월 7일)

8. 독일 제1 텔레비전 방송은 (ARD) 6월 1일 "세계의 소식" (Weltspiegel) 이따  
는 프토에 방영한 필름에서 한 공수 특전대원이 부상하이 쓰러져있는 젊은  
대포대원의 목을 철사줄로 졸라 죽이는 장면을 볼수 있었다.

9. 재미있는 사실 중의 하나는 군부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직접보고 경험한  
공수 특전대 무리들의 잔인한 행위들을 모두 유언비어라고 선전.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입벌에 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들의 이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는 오히려 이 모든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한층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6월 5일자 동아일보는 그와 같은 소위 유언비어의  
예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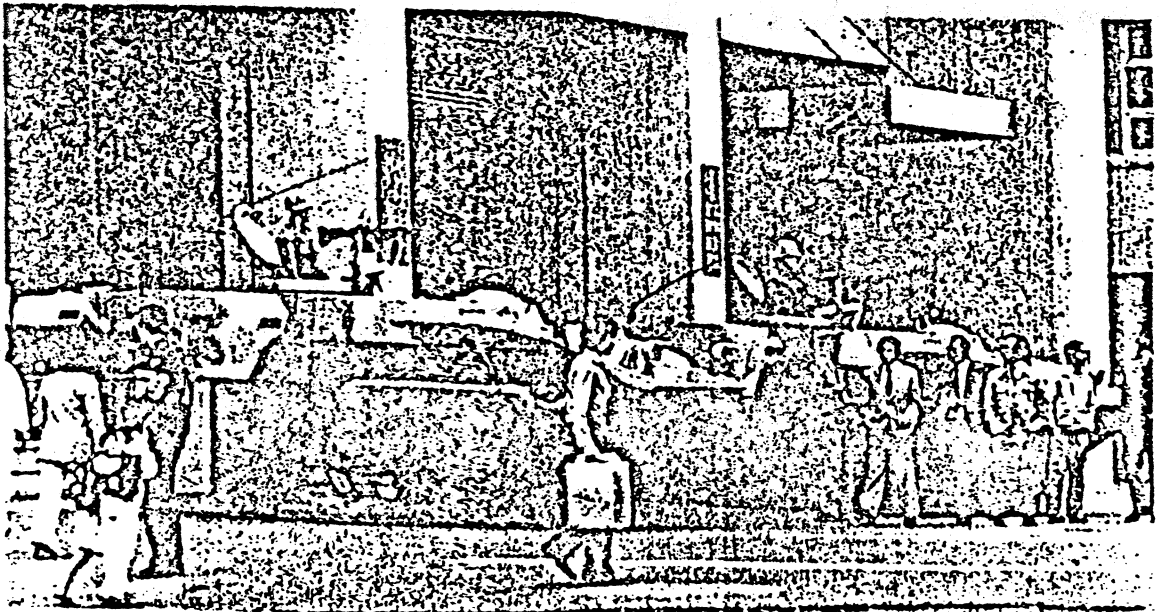
- 광주 사태로 죽은 민간인이 1천여명이나 되며 계엄군이 이대생의 유방을  
칼로 도터내어 시청앞에 걸어 놔다
- 무차별 학살을 자행한 군인들을 하루 굶긴뒤 환과제를 관습을 먹여  
부입 했다
- 계엄군이 전남대생 3명을 학살하이 도청 앞 광장에 천시한 것을 본 전남대  
총장이 충격을 받아 실신. 실려 갔는데 자살실이 유력하다
- 광주에서 계엄군의 만행이 극도로 심했는데 심지어 임신부를 대검으로  
찢러 배아를 꺼내 길에 부렸다
- 계엄군이 장갑차로 사람을 깔아 죽였다
- 공수부대 군인들이 아들 딸들을 대검으로 마구 찢러 죽이고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힌채 장난질 쳤다.



29. Mai 80 Die Welt

# 새로운 군부 독재정권의 탄생

광주시민의 대규모 민주항쟁을 무차별하게 진압한 전두환은 많은 사람들이 예견했던 바와같이, 지난 5월 31일 소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란 것을 만들어 자기권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새유신 독재정권 탄생을 노골화 하였다. 이 위원회는 군인과 민간내각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25명의 위원중 17명(현직장성 14명과 전직장성 3명)이 군출심이다. 형식상으로는 최규하가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나, 그는 전두환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 이 위원회가 내거는 공식적인 기능으로서 1. 국정을 계엄법으로 처리하고, 2. 대동명을 자문하고, 3. 행정기관과 계엄기관과의 협조등원활히 하는 일이다 한다. 이 위원회는 또 상임위원회도 두고 있는데, 이 상임위원회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기획, 심의, 결정, 집행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이 상임위원회의 회장이 전두환이다. 이것으로써 그는 사실상 최규하 위에 군림하게 되었다. 전두환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것은 내각기능을 마비하여 실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위원회와 상임위원회들 모두 장악함으로써 전두환은 새군사 독재정권을 출범시켰다.



# 광주시태와 미국의 태도

전세계에 한국인의 강렬한 민주화의 의지들 유감없이 보여준 광주시민의 대규모 민주항쟁의 성패는 애초부터 미국의 한국군부에 대한 태도와 직결되어 있었다.

미국은 1950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군의 동수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는 생사들 내건 광주시민항쟁의 성패는 「한미합동사령부」의 최고명령권자인 「존·워킵」대장이 전두환군부에게 한국군 전두부대의 광주두업에 동의하느냐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국내외의 모든 민주인사들은 미국이 한국인의 민주화투쟁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적어도 중립적자세를 취하여 전두환군부가 국토방위의 임무를 되고 있는 국군을 자기국민에게 총부리들 돌리 수많은 애국시민을 무차별하게 학살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를 바랬었다. 그러나 이러한 은 국민들의 기대를 뒤엎고 우방이라 자처하는 미국은 전두환군사정권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였고, 그들에게 전두부대의 두업을 통해 광주시민의 항쟁을 무차별하게 탄압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이것이 한반도 주축에 불과한 것이 아님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증명한다.

1. 「존·워킵」장군은 지난 5월 18일 한국군부에 공수특전단의 광주두업요청에 동의, 서명하였다. 5월 22일 미국방성 대변인 「토마스·로스」는 한국측에서 결서유지들 위해 병력요청을 해와, 한미연합군 사령부에 하 부대의 출동에 동의하였다. (「해럴드·트리뷴」 5월 24일자) 그 발표하여 이 사실을 공식 확인하였다.
2. 5월 20일 주한미대사 「글라이스틴」은 외무장관 박동진과의 회담에서, 주일미대사 「마이크·멜스필드」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한국의 새 군사정권을 계속지지한다」는 미국의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3. 광주시민의 반군부민주투쟁이 치열해 지자 미국은 「북한의 남침기도를 분쇄키 위해」 항공모함 「코럴·시」와 몇척의 운양함과 구축함을 한국해역에, E3A 조기경보통제기 2대를 일본에 급파하여 한국군부의 사기를 앙양시켰다.
4. 공수특전단대원들이 이미 광주에서 애국시민학생을 무차별학살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세계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워킵」사령관은 5월 26일 전두환군부에게 광주시민 기습

중격하여 최후의 유혈진압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규모진  
두부대의 증원파견에 동의하였다.

5. 미군사령부는 광주외곽의 한 미공군기지 옆에 계엄군이  
포위망을 치도록 허용하고, 그 기지사령관은 광주상황  
취재기사를 서울로 발송하기 위해 전화사용을 하게 해  
달라는 미국기자의 청을 단호히 거절하였다.

(Frankfurter Rundschau 6월 4일) 뿐만 아니라 광주시에  
서 외부도 동하는 길목에 설치된 각 검문소마다 미군  
헌병을 한명씩 배치하여 대모의 진국적인 학대들 막는  
데 협조하였다.

6. 6월 1일 「카터」대통령은 에데비언 러블 들 동해 「미국은 남  
한에 있어서의 인권중요구와 새 군사정권지지 사이에  
학동의 모순이 있다고 보지 않으며, 미국의 우방들이  
인권문제에 미국과 동일한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는 단  
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는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가닭에 그는 남한에 있어서의 인  
권탄압에도 불구하고 새군사정권을 강력히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6월 3일자 Süddeutsche Zeitung, Die Welt  
Frankfurter Rundschau)

이것으로써 미국이 1000여명의 사망자와 수만명의 부상자  
를 발생케한 한국근세사에 유례없는 대학살에 군사적으로 직  
접간접으로 참여 하였으며, 정치적으로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원칙」을 만들어 내각을 허수아비화하고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  
일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섬으로써, 미국은 한국에서 새  
군사독재정권의 탄생에 지대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

미국이 동맹국 국민의 인권과 민주화를 외면한채 자기들의 새  
세계전략상 필요한 군사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삼세계에 있  
는 모든 부패한 반공군사독재정권을 끝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수행해 왔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의 박정희, 대만의 장계석, 필리핀의 마르코스, 인도  
네시아의 수하르트, 베트남의 락우, 캄보디아의 논들, 니  
파라파의 소모사, 이란의 악독한 샤—아 독재정권지지는 이  
러한 미국의 대제삼세계 정책의 실상을 증명하는 실례이다.  
사실 한국은 자기군대들 미국주둔군 사령관에게 넘겨준 유일  
한 아시아 국가이고, 미국이 아시아대륙에 군사적 기지들가  
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그들이 한국인의 자유와 국  
가안보를 위해 한국에 군대들 주둔시키고 있다는 것이 한낱  
기만과 허구에 불과함은 이런 사태에 취한 그들의 한국국민

에 대한 배반행위가 용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중공의 대미접근정책과 아프카니스탄사태로 인한 소련의 난처한 입장때문에 한반도에서는 과거 어느때보다 북한에 의한 전쟁도발 가능성이 퇴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국의 민주화 노력을 지지하기는 커녕 상투적인 전쟁도발이란 구실로 한국의 군사정권을 지지하고 민주화운동을 말살시키는데 힘써하고 있다.

미국이 이미 결정된 한반도로부터의 철군을 취소하여 군대주둔의 영구화를 꾀하고 야만적인 군사정권을 지지하고 나선것은 미국의 대외정책변경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일남, 이란과 아프카니스탄등지에서 미국의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고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은 어태까지의 긴장완화정책에서 태외의 미군기지에서부터 순식간에 분쟁지역에 기동타격대를 파견하여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소위 「스윙정책」(Frankfurter Rundschau 6월 4일)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변경에 따라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의 군사전략적 가치가 새삼 확립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한국인의 이익과 민주화와는 상관없는 그들의 대외정책에 따라 계속 남한에 군대들 주둔시키고, 국민적 지지들을 상실하여 미국에 더욱 의존하게 될 새 군사독재정권을 지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모든 한국인은 미국의 이러한 대한국정책이 한국의 민주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었음과 그들이 떠들어대는 인권과 민주주의는 서방선진자본주의나라 국민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같이 인식하고 한국민주화투쟁에 임하여야겠다.

미국은 이런의 처사들 통해 전한국 애국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원한을 안겨 주었고 스스로를 한국민중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있다. 그들이 약소국, 민주시민을 대량학살한대 대한수치와 책임을 동감하여 반민주·친독재정책을 변경하고, 전두환 군사독재체제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지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한국에서 실추된 그들의 위신을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 국내외 신문 보도 비교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실현」, 「군부의 퇴진」등의 구호를 외치며 분연히 일어섰던 광주시립의 항거는 전라남도의 성수계도 시들 제외한 서울은 비롯한 다른지역에서는 밀다른 호응을 얻지 못한채 위대한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국내의 신문, 방송이 군부의 철저한 선동동맹로 사실을 전혀 보도하지 않거나 또는 왜곡보도 했다는데 있다.

그 예로 국내신문들은 광주사태 진상보도들 사건발생 5일후인 5월 22일에야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사실들을 들수있다. 그 기사에조차 사건에 대한 자세한 보도는 전혀 없고 계열당국의 공식발표의 기록에 그치고 말았다. 따라서 외국신문이나 방송에 전혀 접할 수 없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군부가 잔인무도한 방법으로 광주시립봉기들 짓밟아버린 5월 27일 이후에야 비록 왜곡된 보도들 통해서나마 어느정도 사건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선동이 민주국가의 실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때문에 우리는 아태국내신문과 외국신문의 광주사태에 대한 보도들 몇가지 간접에서 비교, 국내신문들이 얼마나 일정한 사실은 왜곡보도했는지들 밝히려 한다.

## 1. 광주사태 발단의 배경

국내신문: 국내신문들은 광주시립봉기의 배경에 대한 근본적 분석을 전혀 하지않고 단지 계열명 전체, 민주주의 실현, 김대중씨의 석방등 대모군중들의 막연한 요구사항만을 설명없이 심고있다.

외국신문: Frankfurter Rundschau 의 5월 23일자 사실은 광주사태의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정치경제, 사회적업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독재정권은 선제나 그 내부의 모순으로 인해 스스로 붕괴되버리고 마는 법이다. 우리는 그 좋은 예들 지금 한국에서 보고 있다. 그곳에서는 군장성, 대자본가들, 경제지배인들이 야합하여 너무나 오랫동안 국민을 지배해 왔다. 그들은 서울의 지하철건설, 소비생활의 향상, 외국문화의 수업등 외형적 업적은 요란하게 선전하며 남한에서 아시아의 경제기적이 일어났다고 자랑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떤 많은 정치 사회적 문제들이 쌓여  
 저 왔다. 사상과 비판의 자유는 수년 이래도 억압 되었고  
 야당은 금지 되 왔으며, 그림에도 불구하고 정부들 비판하  
 는 자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경제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말할 수 없는 회생을 강요 당했다.  
 그들의 수입 증가는 별로 있어 본 적도 없었지만 손에 들  
 어 오기도 전에 치솟는 인플레이에 의해 상쇄되어 버렸고 대  
 다수 국민의 생활 수준은 득수권 투쟁과 비교할 때 엄청난 차  
 이가 있었다.

--- 중      탁 ---

최근 전라남도에서 일어난 시민봉기의 어떤에는 사회문제가  
 중대한 동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000명의 군인과 기동경찰들과 대항해서 투쟁한 20  
 만명의 광주 시민들은 주상적인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것이 아  
 니다. 그들은 값싼 섬유제품을 생산하고 검열과 통제  
 들 거친 생각들을 영무새처럼 되풀이 해야 하는 억압된 삶  
 에서 벗어나 인간의 품위와 정치적 자유를 되찾고, 사회적  
 개혁을 통하여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독재의 탄압  
 과 재벌들의 착취에 항거하여 싸운 것이다.

--- 중      탁 ---

이처럼 전라남도 지역의 혁명적 의거, 광주의 불같은 봉기는 도  
 시민민중 생활의 처참, 농민들의 빈궁, 그리고 정신의 말  
 살동이 가져온 치할 수 없는 결과이다. 문자 그대로 국민들  
 의 마지막 항거를 불러 일으킨 것은 더 이상 견딜 수 없  
 는 생활상태 바로 그것 이었다. (Frankfurter Rundschau 5.23.)

일본의 「상계어 신문」은 5월 28일자 기사에서 광주 사태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런 사건은 작년말부터 겨우 진행되기 시작한 민주화 예로  
 의 길이 또다시 군부에 의해 봉쇄되어 어두운 군정시대로  
 역행하는데 대한 강렬한 저항운동이었다.」(상계어신문, 5.28.)

2. 정파적 시위가 무정항 으로 발전된 이유

한국신문: 한국신문들은 예외 없이 개입당국의 광주사태 발표  
 를 글자 그대로 인용, 광주대모가 폭력화 된 것은 시위군중

들이 북한 의 고정간첩과 소수의 불순분자들에 의해 선동된 난폭한 행동을 한대서 비롯되었다고 보도, 폭력화의 책임을 봉기시민들에게 돌리고 있다. 「5월 18일 오전 10경 광주 시내 중심가로 불법진출한 전남대학 2백여명의 시위행렬은 계엄철제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자 격렬화, 오후 2시 경에는 1천여명으로 늘어나 경찰과 두석전으로 대치하면서 경찰지프에 방화하는 등 도저히 경찰력으로서는 저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계엄당국은 부득이 오후 4시 40분경 군명령을 두입하여 강력 저지에 나섰으며 이때의 시위군중은 대부분 학생들이었는바 저지애나선 젊은 군인에게 학생들은 두석과 폭행으로 대항하였고 주원건물의 일부시민이 합세, 군인에게 두석함으로써 상호간 부상자가 발생하자 다같이 별기왕성한 젊은 군인과 학생들은 감정이 폭발, 육신과 고향으로 대항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소란중에 불순분자의 소행으로보이는 유언비어로서 경상도군인이 전라도사람의 씨를 말리려왔다. 경상도군인만 끌라시왔다. 는등 냉철한 이성으로서는 상상할수 없는 지역감정을 촉발, 선동하는 말들이 삼시간에전 광주시내에 퍼져, 시민을 흥분시키고 시위양상을 극렬화하게 되었던것이다.

이러한 근거없는 유언비어는 젊은 군인이 격렬한 난동의 와중에서 저지임무를 수행하게 되니 자연시위 학생을 군중전면에서 제지, 언행하지 않을수없고 학생에게 얻어맞으면서 다소 과격하게 다루거나 도피하는 학생을 추적하여 잡는 과정에서 기물이 파손될수 있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시위군중과 시민들을 고의적으로 자극, 흥분시키려는 목적하에 조작, 유포시킨 것으로서 이는 우리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극대화시키려는 고집과 불순분자들의 계획적 소행이었다.」(계엄사보고)

의국신문: 의국신문들은 이구동성으로 광주시민들의 평화적시위가 폭력화된, 직접적인 원인은 대모진압을 위해 두입된 공수부대원들이 잔약무도한 방법으로 시민들을 학살, 그들의 분노를 자아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Süddeutsche Zeitung 은 5월 30일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원 군사정권이 학생들에 의해 주도되어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물 받으며 확대된 광주시민항쟁을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나 친공적인 불순분자의 책동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왜곡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한국군부의 그같은 시도는 역의에 찬 것이

며, 그리고 모든것을 희생시키더라도 질서와 안보만 성취되면 그것이 정치의 전부인양 생각하는 그들의 턱턱 합리적인 태도를 숨김없이 보여준 좋은 예가 되고있다.]

거의 비스한 내용의 기사가 「아사히 신문」 5월 28일자 사실에도 실려있다.

「전두환은 5월 28일 수천명의 공수특전대원들을 광주로 파견했다. 그들은 무차별한 방법으로 시위군중들을 진압, 군화 발로 차고, 총개머리도 때리며 대검으로 찢어 데모대원들과 행인들을 병신으로 만들거나 찢어죽이고 부상자들을 병원응급실까지 주격했고, 부인과 처녀들을 대로상에서 발가벗기고 대검으로 유방을 도려내어 죽이웠다. 이에 분격한 시민들은 학생들과 연대하여 데모는 본격적인 민중봉기로 발전되었다.」 (Die Zeit, 6월 6일)

### 3. 사상자 및 체포자 수에 대한 보도의 비교

#### - 계엄사 공식 발표

사망 : 174명  
 민간인 148명, 군인 22; 경찰 4명  
 부상자 : 380명  
 민간인 127명; 군인 109명; 경찰 144  
 체포 : 1740명  
 혼방 1010명; 조사중임자, 730명

#### - 외국 보도

Die Welt 5월 28일 : 계엄사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5월 18일 학생들에 의해 시작된 반정부시위의 발발이래로 127명이 사망했다한다. 그러나 믿을만한 정보에 의하면 적어도 450명 이상이 사망했고, 수천명이 부상당했다한다.

Süddeutsche Zeitung 5월 28일 : 군부의 마지막 진압작전에서 적어도 13명의 시민이 사망했다. 5월 18일 발발, 점점 확대된 광주유혈사태에서 400명 내지 600명이 사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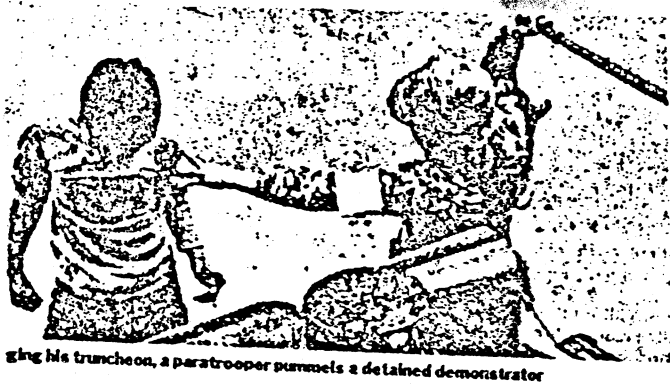
Frankfurter Rundschau 5월 28일 : 계엄사는 이번 사태의 최종단계에서 17명의 시민, 2명의 군인이 사망, 295명의 청소년이 체포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목격자의 추산에 의하면 적어도 세자

더 숫자의 사망자가났다고 한다.

Frankfurter Rundschau 6월 4일: 광주시민대책수습위원회는 최후 기습공격이전까지 261명의 시민사망자와, 기습공격으로 인한 군인사망자 26명을 포함한 170명의 사망자수를 집계했다. 그러나 이 사망자수에는 군용트럭에 실려간 숫자미상의 사망자들과 광주시민항거의 지원을 위해 서울에서 내려와 포위망을 뚫고 시내로 잠입하던 700명 학생들중의(30명만이 시내로 잠입하는데 성공했다) 희생자, 도중수색전대의 추격을 피해 산속으로 피신한 사람들중 가운데 사망자의 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때 10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니며 그에 비추어 볼때 얼마나 많은 부상자와 체포된 자가 생겼는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서독 제2 대테비방송(ZDF)은 「외국소식」(Ausland - Journal) 프로그램 6월 12일자 방영에서 광주사태의 사망자수는 1000여명을 헤아린다고 보도했다.

\* 주독한국대사관이 5월 30일 이후 코린들에게 배포한 국내소식속보라는 유인물에는 다음과 같이 일침나게 왜곡된 내용이 담겨 있다. 「군부대는 위협에 처하여 끈경에 빠져있는 무고한 시민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수행에 있어서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줄이고 평화롭게 해결하도록 전념하였으나 일부폭도들이 파격한 소요행동으로 사태를 악화시키려고 꾀책함으로써 작전중 2명이 폭도가 사망하고 군인 4명이 부상하는 한편 시민측에는 아무런 인명피해가 없었음」이라고 발표했다.



giving his truncheon, a paratrooper pursues a detained demonstrator

# 맺는말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데는 여러가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정치적인 면을 강조할 경우의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 있게 되고, 경제사회적인 쪽을 중요시 하려는 사람들의 민주주의 해석이 따로 있을 것이다. 때로는 한쪽의 설명이 다른 한쪽의 견해와 크게 대립되어 충돌하게 되는 경우도 역사에서 흔히 경험하게 된다.

민주주의라는 말이 이렇듯 다의적이고, 또 상대적인 성격을 가진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탕에는 항상 공동의 이해를 전제로 하는 원칙이 있게 마련이다. 이윤대면, 자기들의 문제를 자기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정의할 경우, 그것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자기문제를 자기스스로 결정한다는 얘기는 사람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서 소외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외란 물론 추상적인 것이 아닌, 아주 구체적인,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의미의 소외를 뜻하는 것이다. 소외가 배제된 사회는 곧 기회의 균등이 배분된 사회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현실생활에서 기회의 균등이 강할 경우, 당하는 측으로부터 물리적인 반작용이 나타나게 될은 필연적인 사회현상이다. 광주사태도 근원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사회현상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것은 소외를 받아 온 일반서민대중들의, 소외를 강요해 온 일부 특권계층을 향한 집단항거의 표시이다.

박정희 독재 18년은 극소수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한, 절대다수 국민들의 소외의 역사였다. 그것은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에 대한, 힘있는 자가 힘없는 자에 대한 탄압의 세월이었다.

탄압과 소외가 가장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난 곳은 일반서민대중들의 경제생활에서였다. 유심정권 밑에서 여기 저기 공단이 들어서고, 술한 공장들이 세워진 것은 사실이다. 길도 이리 저리 몇갈래 번듯번듯 뚫리고, 꽤나 자랑스러운 듯 높은 건물도 잔뜩 지어 놓았다. 경제지표만 들여다 보면 국민생활도 제법 향상된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주의를 가지고 관찰해보면 특별한 경제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도 이것이 얼마만큼 허구와 모순투성이의 경제구조위에 바탕을 하고 있는가가 명백히 들어난다.

끝지막한 공장들은 대부분이 일본과 미국의 독점재벌들과 연  
 결되어 지어진 것들이다. 투자조건이 악명높기로 이름난 일  
 본의 악덕 극우재벌들의 자본침투도 적지않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돈으로 지어놓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의 노동조건은 압담하기 짝이 없다. 서양신문들이 흔히 그  
 참상을 산업혁명 초기의 영국노동자들과 비교하곤 하는것도 전  
 혀 파장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다 참담한 현상은 농  
 촌경제의 쇠퇴에 나타나 있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후진국  
 경제의 건진어부는 농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전제로 한다.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을 빌려놓고 지방에 색깔을 칠한다. 길  
 을 넓힌다, 논바닥에 경운기 몇대쯤 갖다놓는다 하고 밭석을  
 떨어뜨렸지만, 농민들의 생활은 해를 더해 더 어려워져 왔다.  
 소위 산업화라는 미명속에 농촌경제는 그의제제물로 화하고말  
 았다.

유신정권에 의해 형성되어온 한국경제구조의 가장 비극적인성  
 격은, 그것이 민족경제의 발전에 바탕을 둔것이 아닌, 일  
 본과 미국의 경제구조내에서 그들을 보완해주는 예속경제로전  
 락했다는데 있다. 예속경제로 이르는 결정적인 출발은 대  
 제로 5.16 군사쿠데타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한국의 민  
 주화가 처음으로 그 가능성을 시도해 볼수 있었던 민주당정  
 권이 그에 의해 전복되었던 이유때문이기도 하다.

5.16 군사쿠데타는 결과적으로 보면, 몇몇 국내기업과 그  
 들과 깊숙히 뿌리로 연결되어 있는 외국의 재벌, 그리고 이  
 들의 이해와 맞아 들어간 일부 군부에 의한 야합의 소산이  
 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그의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관으로 대일국교 정상화와 그에따른 청구권자금문제를 서둘러  
 해결했다. 일본의 경제적침투가 이를 계기로 본격화 되었  
 다. 한국의 권력구조는 이제 이들 외국자본, 그 자본과  
 손을 잡은 소수의 국내재벌, 이들을 정치권력으로 비호해주  
 는 군부쿠데타 세력의 상호 이해조정속에서 그 들을 형성해  
 갔다. 이같이 상황속에서 한국민의 정치적인 자유는 깡그  
 리 실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 유신헌법의 등장은 한국  
 의 정치가 그 조종(吊鐘)을 울리는 서글픈 순간이었다. 국  
 민들의 요구는 가장 소박한것마저도 안보와 경제성장이라는  
 이름밑에 압살되었다. 노동자들이 월급 몇푼 더 올려 달  
 라면, 농민들이 비료값을 불평하면, 그리고 학생들이 학원  
 의 자유를 되찾자고 나서면, 그것은 모두 나라의 안전을위

법한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탄압되었다.

그러나 자유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제아무리 친박같은 정보탄압장치로도 꺾을 수가 없었다. 마산과 부산에서 일어난 학생 및 시민들에 의한 반독재 투쟁과 그에 뒤따라 찾아온 박정희 퇴장사건은 유신체제 스스로가 마틴한역사발전의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실로 오랜만에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실현의 가능성이 찾아온 듯 싶었다. 그러나 그같은 기대는 환상이었다. 유신체제에 뿌리깊은 박은 세력이 잔존하는 한 민주화애의 소망은 한낱 꿈으로만 남게 된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부세력의 등장은 한국의 민주화가 소망만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신체제에 의해 그동안 굳혀진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저배체제들 근본부터 부정하는데서 출발해야 함을 가르쳐 주었다.

광주시민항쟁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다시없는 용기를 주었으며, 그것은 또, 비록 유신잔당의 단말마적 발악으로 탄압되었으나 이는 민주투쟁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차원으로의 시작을 알리는 승리에로의 외침이다.

# 조선대학과 민주투쟁위원회 회심명서

1980년 5월 22일 광주

## 전두환의 광주 살육 작전

아!

민족사의 대비극이다. 하늘은 어찌 이리도 무섭단 말이냐!

신성한 국보방위의 의무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군인이, 제 2의 거창 양민 학살사건을 자행하고 있다.

이것은 온국민이 가슴을 두드이며 울곡 할 비극이 아니고 무엇이랴 망인가? 17일 밤을거늘, 전두환과 그 일파는 기존의 비상계엄을 더욱강화하고 자기의 뜻에 가슴이는 모든 정치인 민주시민을 제로, 구금함으로써 이나마 백성들이 기어왔던 민주주의에 대한 한가닥의 희망까지도 민살하였다.

이에 분노한 전남 광주, 전남대학과 조선대학을 비롯하여 전 전문대학과 일부 고등학교, 민주시민의 정치적인 시위에 대해, 3만여명의 전투경찰을 동원하여 시민들의 앞과뒤를 막아 페퍼프로그를 쏘아대면서 포위망을 좁혀, 도망가지 못하게하고 서울에서 급파된 3,000여명의 공수 육전대들은, 대검을 빼어들고 미친망년이 처립 오박을 쟁보듯이 당치는대로 쟁어 피가 광분 처립 오르는 시체들을 군포막에다 내어던지고, 그것도 부족하여 달아나는 시민들과 어린 어학생들을 대분까지 부수고 끌어내어,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대검으로 난자하였다. 이어한 망령에 온 시민들은 지붕 뒀며 거말하기어 이르렀다.

그러나 맨손의 시민들은 도리어 칼질을 당하였고, 손바닥은 어학생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고, 공수부대의 먹살을 잡는 70노파를 도리어 칼로 쟁어 죽음을 당했다.

남학생들여게 돌을 날아다 주었다는 어학생을 대낮에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대검으로 난자하였고, 피를보고 울부짖는 시민을 양하여, 공수부대는 피물은 칼을 흔들어대며 죽이겠다고 소리쳤다.

어학생들의 옷가지는 다 젖어거거나 날가벗긴채로 피를 흘리며 트럭에 실어  
가기도했다.

이제 시민의 망기어 덩황한 공수육전단들은 지나가는 시내버스와 승용차  
까지 세워 젊은이들은 닦이는대로 군화발로 짓이겨 병신을 만들거나, 언행  
매갔고, 시외버스 어미날에서는 이러한 만행이 망거하는 시민들국의 싸움중에  
공수부대의 칼이 맞아 죽는이들의 시체가 대입실에 즐비하였고, 미쳐 치우지  
못한 시체는 밤늦게까지 길가에 그대로 놓여있었다.

그나마 맞아죽거나 번한 젊은이들은 조그때똥 엮어매듯 길바닥에 죽은 시체  
처럼 늘어놓였으며, 이때 공수육전단의 구호는 '젊은놈들은 모조리 죽어  
버려라' 였으니, 선두위의 진위대 공수육전대에 의해 무집이 삼육당인  
광주시민의 입상은 원상로서 실병을 못하고 눈뜨고는 볼수없었으니, 나이  
먹은 이쁜들은 이니같이 6. 25 때 인민군들도 어렵게 집안아저는 없었다고  
인인하였다.

지금 광주 언저에는 젊었다는 이유 망가시오 쇠기되어 생명을 잃어야 하거나  
병신이 되어야하는 지진인 운명에 놓여있다.

'광주시민의 70%는 죽어도 좋다' '개똥마미 잡았나' 이이야기는 공수육전단  
의 입에서 구호서 입 나온 이야기이다.

더욱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하는것은 이러한 살육작전에 앞서 경찰군부들의  
가족은 모든 안전거대로 피난했었다는 사실이다. 그뿐만아나라 피를 흘리는  
어학생은 시민들이 병원으로 옮겨 응급치료를 받게 하자, 공수대는 병원까지  
뛰어들어 강요원을 구박하고 기도는 파괴함으로써, 치료까지 못하게  
하였으니 베트남 전쟁에서 양반을 학살했던 만행의 심여부 이럽게도 같은  
말저등어게 보여줄수 있던말인가!

세계역시심 짓이볼수없는 만행에 분노인 권수의 애국시민들은 중부경인  
공수부대에 대해 맨손으로 일기미디 견내는 이인사예를 보고도 계속 어외  
브도복 이고 있는 언론에 대한 웅심외 조치고 분노가병충을 보내왔고, 엇군네  
의 피충초외 군용트럭 빼어코크 차를 방해우게에 이르렀고; 공용터미널  
에서는 시민이 위협병으로 맞서 밤바다가 도이기도 하였다.

공수부대가 지저한 만행에 비인다면 의기들은 이부것도 아닌 소극적인 망기  
인데 진두( )은 오미어 시민들의 비괴맹외 군에 이인사예가 빛이전양,  
미워보도 하였다.

20일밤은 계곡도 전야납도 전내의 모든 용신은 차단시키고, 최후 삼육작전에 들어갔으며, 이제는 고등학생들까지 임금 임금 기어가도록 두들겨 패며, 시내는 온통 울곡초미뿐이다. 이러한 건두함의 육년명명 삼육작전으로 희생된 사망자의 수는 현재까지 200 여명, 부상자는 1 만여명을 헤아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참상을 보도해야 할 언론은 18 일부터 21 일 까지 역몽의 4 일동안 사설보도는 일언반구도 찾아볼수없고, 건두함이 작심해준 원고료 앵무새처럼 외우면서, 강주사에는 일부오이부의 보수세력 책동이라고 면 보도하고 있으니, 아! 앞이 복잡하고 가슴이 아파 붓은 움직일수 없으니 아! 그러나 이제는 독재의 최사슴은 깊고 임기의 피빛으로 모든 강주의 아누에 온국민이 눈물과 분노로 동침하여 일어서고있다.

건두함이 21일 발표한 강주사태에 대한 내용에 몇가지 증언을 적어 보자면 유언비어라고 되있는 사실들이

1. 40여명 사망운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나위없는 사실 그대로 공수부대 관여 의해서 백주에 피를 뿌리고 죽어갔다.
2. 여학생 운운만 부분은 강주역 분수대였다 여학생을 반가벗겨채 세워 놓고 칼로 유방을 도려내어 죽였다.

현재상황은 건 강주 시민의 봉기로 공수부대들은 쫓겨나고, 강주 시내에 건 강공서가 놓여 있고 있으며, 모든 고등학생 용신은 두점되어 있고, 군대의 건주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송경미 철길을 마 액저 버리고, 온 시민들이 모이는 구호는 '죽자' '죽어담마' '부마사태때는 천마도 군인용신은 건주 시켰고, 이번 강주 삼육작전에는 경상도 출신의 공수부대들을 투입시켜 지역감정을 유발시키고 잔인하게 행동하게 함으로써, 그의 속셈은 재우려는 건두함.

일파의 반민족적 만행은 온 국민은 그대로 무과해서 안되] 것이다.

미친개 건 일파를 묶어내지 못한다면 이일게 우이가 후손에게 물어줄 유산은 권없는 억압과 착취뿐이라는 깊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이모두 투쟁의 입선에서 애국기부 목이 어저도록 부르며 나아가자 !!!

'대 안 민 국 만 세' '민 주 주 의 만 세'

- 이상의 밑거지지 않는 판상은 80만 광주 시민이 그 증인이다. 광주시민은 최후의 만 사람까지 투쟁할 것이다.

서 명 인 : 조선대학교 민주투쟁 위원회

1980. 5. 22      광주

- 이 유인물은 주위신 분은 복사하여 널리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실모두를 외면한 신문은 대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학원 기용되어 서명했던 조선대학교 교수들도 17일 12시경에 사복경보원들에게 의해서, 가족들 보는 앞에서 미루 모아도록 구하달라고 언쟁 되었으나, 이쪽 생각은 알 수 없다.  
지금 전남 영원의 모든 지안용 서면 스스로 담당하고 있다. 백성을 죽이는 경찰관과 군인에게 말걸수 없기 때문이다.

v            x            x            x            x            x

이 성명서는 광주에 있는 선교사가 일본 교회를 통해 독일에 전해진 것입니다. 지금 프랑크푸르터시는 5월 28일 10<sup>00</sup> 부터 Alte Nikolaikirche (Römerberg, 6 Ffm)에서 50명이상이 단식투쟁을 하고 있으며, 교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1980. 5. 29

광주 민주시민에 연대하는 한중연모임





## 성명서

무모한 5.17 폭거가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고 말았다. 광주 일대에서 발생할 비참한 유혈 충돌은 나라의 앞날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국토방위를 위하여 전력을 비축해야 할 국군이 그들의 부모형제와 다름바 없는 국민과 맞서 밀고 당기다가 마침내는 유혈 충돌에 이르러,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된 오늘의 비통한 현실 앞에서 나는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아울러 심히 우려를 품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그동안 오늘과 같은 사태를 영려하여 과도정부에 대하여 민주화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정치일정의 단축등을 촉구하여 왔으나, 나의 충고를 듣지 않고 계엄 통치를 강화하다가 드디어는 「국태안정법」인 5.17 폭거를 저질러 오늘의 사태를 자초하였다. 과도정부는 이러한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오늘의 사태는 분명히 나라를 파국에 이르게 할만한 중대한 국면이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현상태에서 더 이상의 악화를 막고 수습해야 한다. 과도정부나 계엄군이든 국민 모두가 냉철한 이성으로 나라 걱정을 하는 차원에서 이 난국을 수습해야 한다. 이 사태가 걷어지는데는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 고통을 주는 경제파탄을 더욱 심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목표인 민주화마저도 저해할 일면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과도정부는 계엄군을 철수시켜 놓고 화합의 정신으로 사태수습에 임해야 하며 국민 여러분은 민주시민의 긍지를 살려 자체력을 발휘하여 더 이상의 유혈을 막아야 한다. 계엄군이 폭력적인 과잉방어로 사태를 악화시킨 일이나 비폭력적인 시민저항이 무장대결로 변화된 것은 다 같이 지금이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어쨌든 광주사태에서 나타난 국민적 저항의 의미를 과도정부와 계엄군은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이며 그 누구도 10.26의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알된다. 아무리 강력한 정부도 강권으로 국민을 굴복 시킬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어떤 핑계로도 국민적 열망인 민주화 과업을 지연시키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없다.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는 의로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과도 정부는 오늘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먼저 5.17 조치를 철회하여 5.17 이전으로 원상복귀 시켜야 할 것이다. 또 비상계엄령을 해제하여 군을 국토방위에 정념케 해야 한다. 과도 정부는 민주화 과업에 대하여 2 일정을 단축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그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야 한다. 나는 국민을 대표하는 신민당의 총재로서 엄숙하게 충고한다. 우리 국민은 유신체제 역할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더구나 군사독제를 기도하는 군사쿠데타는 더무슨 국민적 투쟁에 부딪칠 것이며, 그러한 기도에 대하여 나는 백만 신민당원과 더불어 국민의 선두에서 투쟁한다는 것을 엄숙히 밝혀 둔다. 우리는 어느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 갈 것이다.

이번 사태로 희생된 영령들과 유족들, 그리고 부상자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보내는 바이다.

1980. 5. 23.

新民黨 總裁

金泳三



대한 한사람이 방망이에 맞아 머리가 터져서 대외조직들이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그들이 행한 무자비한 行勳들 안에서 비교적 가벼운 경우들입니다. 주변상황이 그렇게 잔인한 까닭에 무자비한 장면들은 카메라에 담은 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30년간 그다지도 非自由的으로 잔인했으므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이한, 그들은 계급적으로 重要な 시기를 위하여 시위를 받았으며, 알코올과 한각제만으로 며칠을 충주했으리라는 것으로 보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중만에도 이렇게 잔인한 行勳들을 없었다"는 어른들의 말씀은 민중들의 感情을 크게 충동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흥취계부대(공수부대들은 지금 흥취계부대로 간주되고 있음)들은 그들이 죽었던 수많은 시체들을 숨기거나 태우리라고 생각합니다.

市民들과 學生들에 의해 市內가 장악된 現象의 경제적 계기는 元전수조합의 一員들이 자동차로 반격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동료 元전수 4명이 데모대 學生들을 태워다 죽었다는 理由로 죽음을 당하여 몹시 격렬해졌습니다. 저희집이 광주市 中央경찰서 근처에 있으므로 제눈으로 직접 20일 밤과 21일, 市民회관 부근에서 일어났던 몇몇 저항운동을 볼 수 있었습니다. 21일 오후 10시경, 무모한 싸움이 또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분별한 것이었으면 10살쯤 된 어린아이가 총에 맞아 죽었고, (경찰서로 통하는 골목길에서 제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금남호텔에서 일하고 있던 요리사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저는 어제 22일 오후 7시 10분까지 광주市 廣장에서 열린 市民총회기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學生代表들의 격렬한 演說에 감명을 받았고, 自由와 民主主義의 根本적 實現에 대해 긍지를 가지

있습니다. 民衆지도자 金大中氏는 (당국은 2개월조차 북한이 간첩으로 혐의를 두려고 애쓰고 있음) 우리 市民들에게 美國이나 日本 방송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강요했고, 우리 自身의 눈으로 보지만 이야기하지 귀를 닫아 들은 것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力諷했었습니다.

학생들은 金大中氏와 같은 한 特定人物의 편에 서서 싸우서는 결코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국에 처한 그들의 要求항목중에서 한글자도 金大中氏에 처한 것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저항의 주력은 처저히 非暴力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光州市 中央경찰서는 근처 주민들의 선득영분배 극단적인 증오속에서 있었던 공적은 최소 3번 이상이나 모면할수 있었습니다; MBC 방송국이 - 권하지 않은 進行과정으로 因히 분탈을 때, 학생들은 모든 것이 위해 순위를 다하는 것을 제 3생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光州市民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 는 소위리어 있다는 느낌을 금할수 없습니다. 어둠이 짙어지기 시작하면 정의의 학생들이 그렇게 외롭게 남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一般的인 마스크의 분노가 우리들의 기대라는 너무로 판이 하게. 그렇게 약하고 表面的이었다는데 理由가 있습니다. 서울로 부터 들은 라디오 방송은 허위다 不誠實로 가득찬 內容이며 우리들은 어안을 빙빙하게 했을 따름입니다. 만약 아주 진실한 것 같이 처저히 검열만 있었더라면, 우리들의 저항은 벌써 성과를 가져왔으리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의 상황은 1960年 4.19 혁명리 비교할수 없으리만큼 비참합니다. 저는 生存의 自由를 위해 이 不測한 상황으로 마주쳐야하는 어떠한 民衆저항운동으로 기억할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決定的 時期에 3차도 북한에서 온 5번째 考驗을 찾아내고 있고, 또 찾아내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호리

이대지도 있소이 모자나고, 그리고 곧 소위되어 있습니다.

전두환장군은 박정희대통령과는 아주 다른 사람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박정희대통령의 과실에도 불구하고 그를 생각하여 한탄하고 있지만, 아민으로부터 무관다사자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들도 전두환의 폭행에서 소생한 것입니다; 그는 흥혈제의 일종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비정상적인 기생충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만약 그것로 아니라면 어떻게 그러한 '흥혈제 부대'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 우리들은 전두환이 지금 그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국으로 탈출하거나, 광주市民이나 광주지방주변의 市民들은 감히 대항할 만을 '외주역 정부로 더욱 경건하게 만들거나, 등중에 하나뿐임을 알고 있습니다.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우리의 비극에 대해 결국 책임을 져야 한다; 승복한다면, 태본준에 맞지 않는 소리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후쿠미연합군 사령관이 우리나라의 최종 지휘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안정한 평화나 질서가 이 지역에서 다시 일어선다면, 모든 市民들은 전두환의 통제 하에 있는 限, 경문과 노여움, 그리고 죽은 사람들에 처하여 치욕감이나 죄의식을 느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 美國의 가장 誠實한 중맹국인 韓國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망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특별히 저는 타임지나 뉴스위크지가 가능하면 많은 페이지에 걸쳐 韓國의식을 반대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두 잡지는 한국에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경영에 의해 취소된 여백으로 사람들은 우리들의 비극이 얼마나 큰 것인지 認識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비극의 당면의기를 막게 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푸침이가 우리自身은 눈앞에 타 있다는 것을 알지만, 正義를 위해

사유로 있는 유년 권위자들을 위해서 천번 만번 안전하도록 기도합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광주地方은 포위하고 있는 군대를 돌파하거나 서울이나 다른地方에서 온 많은 학생 등이 끊임없이 사격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년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군인들도 역시 유년들의 희생제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몇몇 반역자들에게 의해 이런 어아어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얼마나 통곡할 민족의 대비극입니까!

읽어주신 신문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운이 함께 하기를!

동포에게 드리는 글

피를 부르는 어썩 근심한 소리가 우리가 교묘히 짐드리는 우리의 안방에 끼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팍과 머리를 갖어꺼어 놓으려고 하는 지금, 동포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권위가 우리를 짓눌러 우리의 숨통은 막아 버리고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 우리를 번득이는 총탄의 위협아래 끌려다니는 노예로 만들고 있는 지금.

동포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참한 살육으로 수많은 선량한 민주시민들의 뜨거운 피를 뜨거운 오희의

하늘아래 뿌리게 한 남도의 봉기가 유신정당들의 억압한 인호협약으로 외세와  
거짓과 약력에 찬 허위선전으로 분할해 지고 있는 것을 보는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년 동안 살벌한 총검여러 갖은 압력과 만행은 자행하던 박 유신정권은

그 수괴가 피를 부리며 쓰러졌으나 그 진당들에 의해 더욱 가혹한 탄압과 압제가

아우며 지고 있다. 20년 동안 허위경 통계 숫자와 사어비 정치이론으로 만들어낸

도면에 몰아넣은 결과를 우리는 일부 돈 거권자와 권력거권자를 제외한 온 민중이 받는

생존권의 위협이라는 것으로 똑똑히 보고 있다.

유신정당들은 이제 그 최후의 반격을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공포와 불연이 열면서, 깨치름. 노예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슬픈 타는

우리로써 자유시면으로서 맑은 공기 마실 것 마시며 환희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 것인가. 또다시 치욕의 역사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고 뚜렷한 초상이 될 것 인가.

동포여, 일어나자, 마지막 한 사람 까지 일어나자. 우리의 힘 모아 싸움은

역사여 정 방향에 서 있다. 우리는 이긴다. 반드시 이기고야 한다.

동포여. 일어나 유신정당의 습동에 결성적 활력을 가하자.

일어나자, 일어나자, 일어나자, 동포여!

내년 정오 서울역 광장에 모여 오를 수천여 몸부처 싸우자, 동포여!

1980년 5월 30일 김 의 기

\* 이 글은 5월 30일 서울 증로 5가 기독교 회관  
강당에서 두기 내려 자결한 시경대 4년생인  
김구의 마지막 글이다

안보와 경제성장을 구실로 18년간 인권을 민주주의를 안살해 온 박정권의 독재체제로 한국 민중은 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

민주인사는 불순본자로 낙인찍혀 무용되고, 언론은 권력의 장부로 전락하고, 학원은 병영화 되어왔다. 빈부의 격차는 날로 심해져 농민과 노동자는 최저 생활조치 유지 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도달했다. 소수의 권세력과 권력을 등에 업고 척부한 한중 제법만을 옹호하게 위해 "한국적 민주주의" 라는 미명아래 민중을 착취 탄압하던 박정권의 주음과 더불어 자유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새 시대의 막이 열리는 듯싶었다. 이에 학생들은 학원의 자유를 부르짖고,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의 회복을 요구하고, 그리고 국제 각층의 다른 모든 국민들도 그동안 잃고, 빼앗겨고, 짓밟혔던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자고 소리높이 외쳤다. 최규하가 이끄는 과도정권은 민중의 이같은 심스러운 여망앞에 비록 외혹스럽고, 불투명하고, 불충분하건 했지만, 새 헌법과, 새 선거와, 그리고 새 정부의 구성을 약속했다.

그러나 전두환을 비롯한 군부의 일부 반민주세력은 12월 12일 사태를 통해 전권을 한손에 장악 함으로써 민주화를 열망하는 온 국민의 기대를 송두리째 빼앗아 갔다. 이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집회와 인내로 민주화운동을 추진해 오던 애국시민, 학생들은 본연의 충결거하기여 이르렀다.

군부는 이를 구실로 비상계엄령을 강화하여 집대중을 비롯한 민주인사 체포, 국회 및 각종당당사와 대학의 폐쇄, 정치활동의 금지, 철저한 언론통제 등의 폭력적 방법으로 민주화 운동을 영원히 말살하려 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에서는 시민과 학생들의 경화적인 시위가 계속됐고, 계엄군은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탄압을 가함으로서 수백의 사망자와 수천의 부상자를 내는 전대미문의 유혈사태로 이끌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광주의 시민, 학생들은 전차, 장갑차, 공수부대의 포위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의롭게 싸우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비극적인 사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불법으로 실권을 장악, 국민의 민주화요구를 폭력으로 말살하려는 군부 세력에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광주 시민의 항거는 이른바 "불순 세력" 의 사주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민심의 자발적인 표현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우리는 광주 시민과의 연대의식 속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광주 시민에 대한 무자비한 무력적대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1. 계엄령을 즉각 해제하고, 군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1. 전두환 및 현내각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가라.
1. 구속된 모든 민주인사를 즉각 석방하라.
1. 지역감정을 악용하여 민족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
1. 안보를 구실로 민주세력을 탄압하지 말라.
1. 자유선거를 통한 정권이양을 하루 빨리 실시하라.

1980년 5월 26일

북음한인학생회

27.Mai 1980

## Aufruf der demokratischen Koreaner in Marburg

Seit der Ermordung des Präsidenten Park-Chunghee im Herbst 1979 hat das koreanische Volk die baldige Wiederherstellung der Demokratie in Korea ersehnt.

Das Militär wollte jedoch sein bisheriges diktatorisches Herrschaftssystem weiter fortsetzen.

Dagegen demonstrierten alle demokratischen Kräfte Koreas und forderten einen baldigen Demokratisierungsprozeß.

Daraufhin übernahm am 17.Mai das Militär mittels einer weiteren Verschärfung des Kriegsrechts und der Verhaftung von hunderten von Oppositionellen auch faktisch die Macht in Korea.

Insbesondere in der südwestkoreanischen Provinzhauptstadt Kwangju eskalierten nun die Auseinandersetzungen zwischen demonstrierenden Studenten und Armeeinheiten.

Aufgrund der brutalen Vorgehensweise des Militärs solidarisierten sich die Bürger und (Berg-)Arbeiter mit den Studenten. Ein demokratischer Bürgerausschuß übernahm die Macht in Kwangju; die Militäreinheiten wurden aus der Stadt vertrieben.

Eliteeinheiten der koreanischen Armee umzingelten Kwangju und forderten die Bevölkerung auf sich zu ergeben. Die Bürger beschlossen, notfalls unter Einsatz ihres Lebens, weiter für ihre Forderungen zu kämpfen.

Inzwischen erklärte die USA ihre weitere Unterstützung für das Militärregime.

Am 26.Mai hat das koreanische Militär mit Hilfe von Panzern die Stadt Kwangju gestürmt. Dabei gab es mindestens 400-600 Tote und 4.000-6.000 Verwundete.

Der Widerstandswille der Bürger Kwangjus und Koreas ist jedoch nicht gebrochen, unser Kampf geht weiter.

Unsere Forderungen sind:

1. Aufhebung des Kriegsrechts für ganz Korea und Beseitigung der Militärdiktatur
2. Einstellung der Unterstützung der USA für das diktatorische Militärregime
3. Straffreiheit für alle Aufständischen in Kwangju und gleichzeitige Bestrafung der verantwortlichen Militärs für die in Kwangju begangenen Greuelthaten
4. Sofortige Freilassung aller politischen Gefangenen und Wiederherstellung der Demokratie in Korea

Wir - die demokratischen Koreaner in Marburg - fordern Euch auf, Eure Solidarität und Unterstützung mit dem kämpfenden Volk Koreas durch die Sammlung von Medikamenten, Geld, Unterschriften usw. zu beweisen.

gez. demokratische Koreaner  
in Marburg

V.i.S.d.P.: Peterm Schmidt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고 그 아름다움을 향유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아름다움은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켜 준다. 아름다움은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고, 우리의 존재를 더 가치 있게 만든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찾아야 한다. 아름다움은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켜 준다. 아름다움은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고, 우리의 존재를 더 가치 있게 만든다. 아름다움은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켜 준다. 아름다움은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고, 우리의 존재를 더 가치 있게 만든다.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고 그 아름다움을 향유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아름다움은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켜 준다. 아름다움은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고, 우리의 존재를 더 가치 있게 만든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찾아야 한다. 아름다움은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켜 준다. 아름다움은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고, 우리의 존재를 더 가치 있게 만든다. 아름다움은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켜 준다. 아름다움은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고, 우리의 존재를 더 가치 있게 만든다.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고 그 아름다움을 향유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아름다움은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켜 준다. 아름다움은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고, 우리의 존재를 더 가치 있게 만든다.

상황을 보아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또 조종은 사랑함과 뜻을 서로써 확인하고  
반하여 보면 서로 다른 마음 가진 것은 사랑과 연대함이 우리의 모든 지혜와  
목기를 하나로 묶는 일이야말로 지성의 상황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단점과  
결정적인 진실임은 극명하다.

민중의 극적인 자유의라든 말상기려는 전무한 일자가 국민들의 완전한 행복과  
차고 이치서 우리 조국의 현실에 바탕한 이성과 바탕한 참이로써 인생의  
어제가 발발할 땅을 앞지러 앞을 보자기 위하여 우리도 우리도 위함할까 아니라  
증거의 해 대한 민주정정을 뜻기하지 않을것이요 그 밖의 자유와 기쁨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신념을 위하여 수호할 것이다.

특히 이번 광복절의 참정함을 이치서 우리의 아함은 자국한 이치이  
광복절의 참정함을 위하여는 내어주시고 내어주시고 내어주시고 내어주시고  
두께 지성을 의미하는 단정한 사상을 우리가 행하여 참정함을 지니는 것이  
것이다.

아름다운 광복절을 하려는 국민이 마땅히 참정함을 위하여 국민이 마땅히  
정의를 위하여 참정함을 위하여 참정함을 위하여 참정함을 위하여 참정함을  
보려는 참정함을 위하여 참정함을 위하여 참정함을 위하여 참정함을  
행하여 참정함을 위하여 참정함을 위하여 참정함을 위하여 참정함을  
아름다운 국민이 참정함을 위하여 참정함을 위하여 참정함을 위하여 참정함을  
아름다운 국민이 참정함을 위하여 참정함을 위하여 참정함을 위하여 참정함을

연일수행함을 위하여 국민이 참정함을

국민이 참정함을 위하여 국민이 참정함을

## 성 명 서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강토는 지금 피바다로 되었다.  
인간으로써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와 생존권을 요구하고 나선 민중들에게 「전두환」을 두목으로 하는 「유신잔당」은 무차별 사격을 가하여 이미 300여명의 시민이 사망하고 수천명을 부상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무서운 결과로 발전된 사태의 책임은 이미 역사의 심판을 받은지 오랜 「유신망령」을 붙들고 부패와 특권을 유지해 보려고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유신잔당」과 이를 공공연히 지지하고 나선 소위 「우방」이라는 미국 카터행정부에 전적으로 있다는 것을 우선 밝힌다.

「유신잔당」은 민주헌정수령이라는 전국면적 열망을 외면하고 「정치발전」이니 「국가안보」라는 명목하에 시간을 끌면서 「유신계제」를 재 정비 하려는 용계를 반대하고, 나선 민중의 정당한 행위를 「불순세력」의 난동으로 몰아부치면서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나이 어린 여학생들을 백주에 발가 벗기고 총검으로 난자 살해하는 귀족같은 만행을 저지르고 이에 항의하는 평화적 시민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이러한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당방위를 위하여 무장한 민중들을 「공비도벌」하는 식으로 몰살시켜겠다고 수만의 군대를 풀어 대규모 「군사작전」까지 벌려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기 국면을 모두 「적」으로 몰고 학살만행을 저지르는 「유신잔당」을 직접 간접으로 고무추동한 현 「카-터」 미국행정부의 태도와 행동은 우려들 토 하여금 실토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전 국면으로부터 버림받은 현 군사정권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가져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까지 「유신잔당」에게 넘겨주어 한국민중을 가혹하게 탄압시키게 하는 「카-터」 미국 행정부의 태도는 한머디로 말해서 우리 국면을 허잡은 발레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한다는 우려들의 종래의 의욕을 더 절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분석의 입장에서,  
자유와 생존권을 위해서 피흘려 싸우는 한국민중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상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 요구한다.

- 1 「전두환」을 우두머리로 한 「유신잔당」은 즉각 퇴진하라!
- 2 애국적인 국군장병은 민중의 편에 서서 총구를 「유신잔당」에게 돌려라!
- 3 「카-터」행정부는 그들의 「유신잔당」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지하라!

민주사회건설협의회

1980년 5월 24일

투쟁하는 조국의 애국시민을  
위한 재백림 한국인모임

백림, 5월 28일 1980년

한국은 지금 어디로 가려하는가?!

마지막 항전의 긴박속에서 외국인기자에 전해졌던 「광주」의 타계  
절규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고있는가?!

" 우리는 한데 뭉쳐 싸우고 있다. 전세계에 이소식을 ... !! "

광주사태에서 터져진 「유신잔당」의 독안과 야만은 개명된 사회의  
정치적양심에 끝없는 의문을, 우리 해외동포에게는 끝없는 분노와 수치  
안겨주었다. 스스로 모멸을 파들어가는데 그들 「찌꺼기」의 단말마적  
광기는 수천의 동족을 도륙(屠戮)하는 인간야수로 표변하였던 강토를  
세계의 산과 강의 바다로 뒤엎어하고 있다.

미국은 유신구조의 사후적 승인이라는 과오에, 전두환도당의 독재적  
후견을 통한 「미국이 후회」를 위해 돌이킬 수 없는 또다른 파국을  
바탕하고 있다. 역사에서 배후기를 거부하는 자에게 돌아가는 문은  
반동과 몰락의에 그 어떤 다른 것이 아지 않음을 전세계는 한국을  
통해 일러번 확인해야 되는가?!

분노와 절망속에서 죽어간 형제들에게는 빅크러운 죄(罪)를,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卍, 卍, 卍의 「광주」에 계속하는  
죽으로, 우리는 28일 10시를 기해 단식투쟁을 결행함과 동시에,  
해외동포와 한국민중항쟁에 연대하는 모든 민주수호인들의 성원을  
기대한다.

1. 「유신」이라는 이름의 모든것을 우리는 거부한다.
1. 전두환을 비롯한 「유신잔당」은 타도되어야 하며 광주사태의 모든책임은  
군인적으로 추궁되어야 한다.
1. 미국은 군사독재 탈퇴에 대한 일체의 지원은 즉각 중단하라.
1. 세계는 자유의 생조조건을 위해 독립하는 한국민중을 지지하라.

한일장소 : Evangelische Studentengemeinde der TU Berlin  
Carmenstr. 11 1 Berlin 12  
(Tel. 313 2039) - 53 -

광주 사태에 관하여 미국 카터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집의서

엄청난 사상자를 낸 광주 사태를 지켜보며, 우리는 미국 카터 행정부의 대한정책에 대하여 깊은 회의와 야감은 표시 하지 않을 수 없다.

30년간 우리와 현맹의 우의를 맺어 온 우방 미국에 대한 한국국민의 신뢰는 귀하가 취임 하면서부터 주장 해 온 인권외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한층 깊어졌다. 특히 작년 10월 26일의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 이후 귀하의 거듭되어 온, 민주화 촉구 발언으로, 전쟁과 독재로 점철 되어 온 민족사의 비극을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집서를 창조하기 위한 힘찬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우리는 상당한 고무를 받은바 있다. 그러나 5월 17일 이후 지금까지 특히 광주 시민의 연흔에 걸친 피나는 투쟁이 군부에 의해 경압된 이 시점에, 우리는 이러한 비극적 사태를 초래한 데에 대한 일단의 책임을 귀하에게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지금까지 알려진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한 우리의 질문에 대해 귀하의 솔직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한다.

1. "미 국방성이 5월 22일 군중 진압, 혼란 수습을 이유로 워킹 장군 휘하에 한미 연합군 사령부 예하부대의 병력 사용에 동의 하였다."고 하는 미국의 조치는 (트마스 로스 대변인 발표. UPI 5.22, 동아일보 5.23, 워싱턴 포스트 5.23, 타임지 6.2 등)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정한 병력 사용의 범위를 일탈한 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이며, 결과적으로 한국국민의 민주화 요구 투쟁을 말살하려는 전두환 일파의 무력 탄압에 협력한 것이 아닐까?
2.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대사가 5월 23일 공화 신민 유정희 의원을 초청하여 "미국은 5.17의 계엄강화 조치의 배경과 불가피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한 발언 (동아일보 5.24)은 미국이 전두환 등이 행한 삼상이 불가피"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는 의미인가?
3. 마이크 맨스필드 주일미국대사가 5.22인 동경의 프레스 클럽에서 "미국은 한국의 군사정권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 끝까지 지원 하겠다."고 한 발언 (에이피 5.22. 로이터 5.22, 프랑크 푸르부른트

좌우 5.23, 프랑크 루르츠 알게마이네 5.23) 은 과연 미국의 한국군사 독재정권 지원이 " 한국의 투자환경과 신용능력에 대한 위협" (프랑크 루르츠 룬트 좌우 5.23) 으로부터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것인가?

4. 미국은 1979. 12.12 군부 쿠데타직후 " 한국에서의 군사정권이 출현을 경계" 하여 전두환의 퇴임을 요구 하는 한편 예정 되었던 경제 협력 관계회의를 취소 하였던 것과,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직 까지 겸임하자, 5.1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수뇌회담에서 귀하자신이 " 일인이 군. 정보. 보안 각 부문을 한손에 장악한 것은 지나친 행동이라는 태도를 밝히고, 한국군부에게 특히 전두환에게 불쾌감을 표시하고, 나아가 금년 여름에 열릴 예정인 한미 정계 안보협의회 의 개최를 무기연기 하여 군사정권에 압력을 가한 사실 ( 이사회 신문 4.22 . 통 5.5. 뉴스위크 6.2) 은 ① ②③항과 무슨 되저 없는가?
5. 헤럴드 브라운 미 국방장관이 5.23 "한국사태와 관련하여 북한의 군대 이동이 있음을 뒷바침하는 정보는 없다." 고 하고 (동아일보 5.24) 토마스 로스 국방성 대변인이 5.22 " 북한군이 한국의 현 상황을 이동 하려는 움직임이나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22 백악관에서 에드몬드 머스키 국무장관의 주제로 열린 국가안보회의 고위정책조정위원회가 "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한 예방조치" 로 E-3A 형 군비정보체계기 (AWCS) 2대와 항공모함 "코라시" 를 한국으로 파견하기로 한 결정의 건의는 무엇인가?
6. 미 국무성의 로딩 카터 대변인이 5.18 미국 정부는 계엄강화와 정치인 검거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이러한 결정이 이 나라의 문제를 악화시킬 따름이다. ( 유피아이/ 디피에이 5.18 ; 워싱턴 포스트 5.26, 인허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5.20 ) 라는 성명을 발표한 후에, 광주에 유혈시해가 벌어졌 5.26 에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학생과 군부사이에 희생방지를 위하여 내국이 중재에 나서도록 요청한데 대해, 국무성이 외국정부가 개입 하기는 어렵다 ( 로이저 5.26 , 인허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5.27 ) 는 입장

을 취하고 다시 광주의 저항시민에 대한 견해가 완료된 5.27에는 국무성  
토마스 로스 대변인이 성명을 통하여 한국의 수명의 장수에 의한 군사정권  
수립확약에 우려를 표하고, 전 사회계층을 망라한 민권정부를 수립할것을 촉  
구" (워싱턴 포스트 5.28,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5.29) 한것은 국무성  
외교의 일관성을 견여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가?

7. 한국의 한 노련한 외교관이 " 김영삼은 능력 부족이고, 김대중은 너무 급진적  
이고, 김종필은 너무 때 묻었다." 고 한 발언 ( 뉴스 위크 4.7, 동아일보  
4.12 ) 과 5.17 계엄강화조치로 전두환이 김대중, 김종필, 두 사람을 체포  
하고, 김영삼은 가택연금 시킨 사실과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아야 하는가?

이상과 같은 의문은 제기 함에 있어, 우리는 미 행정부가 일관된 강자지원정책  
으로, 워남, 칠레, 이란에서 각각 실패 하였던 경험은 아울러 상기 시키고자  
하며,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국민이 미국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때, 그로  
인하여 생겨결경도 모를 불행한 결과를 심히 우려하면서 위의 질문등에 대해,  
귀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이다.

1980. 5. 31 본.

재독 기독교 한인교회협의회 후우선으로  
NRW 한인교회가 주최한 "나라를 위한 기도회에서"

연락처 :

41 DUISBURG 12

LANGE KAMP 6

TEL 0203 - 463210

지금 우리의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다.

조국에 있는 수십만 우리 가족이 제 2 차 대양학살의 위기에 놓여있다.

25 일 현재 ( 독일 시간 ) 광주 시의 항쟁시민들을 포위하고 있는 1 만 이상 군대의 광주소탕작전은 초를 다루고 있다. 명령이 떨어지던 항쟁시민 20 만 ( 광주 전 시민의 4분의 1 ) 의 목숨은 무자비한 상륙전의 희생이 되어야 한다.

5 월 18 일 전남대학의 평화스러운 데모를 저지하기 위하여 투입된 공수특전대 (Elite-Truppe) 는 헬리콥터에서 낙하하여, 학생들의 머리위에 무차별 사격을 가하여 순식간에 200 여명의 희생자를 내었다고 한다.

일부의 보도는 공수부대 사병들에게 환국제를 복용 시켰다고 하며, 이들은 낙하후 5 명의 여학생을 군중 앞에서 대검으로 찢 가슴을 찢는등 난자 실향하였고 " 너무 심하지 않는나 "며 이에 항의 했던 경찰 책임자등 그 자리에서 목 졸라 죽이고, 여고생들을 나체로 끌고 다니며 고문 앞에서 데모를 하려는 여고생들을 향하여 " 너희들도 가봉면 이런 식으로 하겠다 " 고 협박 하였다. 자학을 수색 하면서도 대검으로 천장을 무자비 하게 쏘시던 군인들에게 항의하던 시민들을 삼상하므로써, 이를 목격한 광주시민들은 극도로 흥분 " 공수대는 병쟁이 보다 더럽다 " 면서 시민전쟁을 전개 할 것을 결의 하였다고 전한다.

1. 건투환 보안사령관의 처형 2. 김대중씨의 석방 3. 체포된 학생 민주 인사의 석방 4. 계엄령의 즉각 해제 5. 월가 시민에 대한 보복 금지 6. 광주 포위 군대의 투입중지 7. 현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청년 학생들은 15 인의 대책위원 ( 학생 교수 종교인 독립유공자 등으로 ) 구성 ( 대포위원 윤공익 대주교 ) 단약 : 46,000 발 소총 3,500 정, 경기관총 2 정, 장갑차 4 대, 집차 80 대, 트럭 50 대 등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무기 ( 계엄당국 집계 ) 를 요구조건을 수락하면 포기 하겠다고 하고, 계엄당국과 협상을 시도 하여 이미 수 천종의 각종 병기를 반납하였으나, 계엄당국은 요구조건을 무시 하였다. 5 월 24 일 헬기 편으로 광주 역 내려온 최규하 대통령은 방송, 비박를 통하여 " 무기를 포기하면 광둥을 베풀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이 선언은 회유책에 불과 하다고 믿은 저항 청년 학생들은 전남도청 지하실을 거점으로 7월 7까지 무력 항쟁 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

한편 25 일 오전 10 시에 열린 희생자에 대한 합동장례식에는 광주 시민 2 만 이 명이 참가 하여 화한 된 92 구 의 시체 ( 사망자 통계병원집계 135 구, 일부 의신 보도 450 구, 일부 목격자 1,000 여구, 합계 시면적 3,000 여구 ) 등 놓고 총곡 하였다 한다.

광주에 내려간 최 대령은 최후 용접부 군의 광주 진입을 승인 하여 광주 외곽 2 마일 거점을 제외하고 있는 군 ( 포남 출신을 제외 ) 의 시내진입은 시간문제 가 되었다. " 더욱 경악 할것은 요하즈 로스 (Thomas Ross) 미국방심 대변인이 22 일 "한국측에서 정서 유지를 위한 병력 요청을 해와, 한미 연합군 사령부 에하 부대의 출동을 동의하였다" (메인드 트리본 24일자 ) 고 공식발표하였다는 점이다. ( 한국군의 작전계획은 1950 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미국군의 위양 되어 있음 ) 이는 광주 시민의 대량학살에 미국이 협조 내지 공부 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군부의 총검정치에 대한 항쟁은 목포, 여수, 장성, 나주등 15 개 지역과 인근 도시에까지 번져고 있다. 서울은 수도 경비 사령부 병력 만으로 부족, 두 개 사단의 병력은 중강 5 만 여명의 군인이 거처와 공공서, 보도 격동들을 강압하는 한편, 군의 치압은 정당하다는 명분으로 경찰의 무장해제까지 단행하였다고 한다.

각 대학의 교수들과 종의 심은 군인 들이 난입하여 계몽을 무수고, 5 월 23 일에는 장정들을 모두 예비군 훈련에 소집, 입체의 다른 행동은 하지 못 하도록 통제하였으며, 이러한 군부 전권정치에 저항 등아의보동 인권계 거자들은 집권을 거부 (계엄사 측에서는 광주 사건의 희생자가 1 명 뿐이라고 보도 할것을 요구) 하여 신문사 장부들이 계엄사 발표문만 가지고, 신문은 제작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 부산, 대구, 마산 등지는, "오 주의 인품" 에 대한 예리검속을 하여 이미 수 천명을 구금 하였다고 한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총검정치와 사해수습을 동여 싸우, 권력내부에서도 치열한 권력투쟁이 전개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 가운데 (Tagesspiegel 5 월 23 일자) 강경파의 온건파의 싸움으로 부상자가 발생, 이들은 서울 대학병원에 입원 군인 들의 병동을 엄중하게 경계하고있다는 소식이다.

5 월 25 일자 일본의 일간지 들은 "4. 19 때에도 200 명 가까이 생명을 잃었으나, 군은 중립을 지켰다. 한국에서 민간인에 대한 군의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하여 "제 2 의 광주" 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고 보도하고 있  
고, 서울에서 목격자들은 "제 2, 제 3 의 광주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광주를 장  
악하고 있는 무장학생들은 최후까지 저항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이 사건을 지역감정으로 오도, "급대중시카 호남지역 국민들과 학생들을  
선동, 정부 전복을 하여 스스로 대통령이 되려 하였다." 고 선전, 각 지역에서의 호  
응을 저지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5월 23 일에는 특공대가 저항학생들과  
고전, 24 명을 사살 하였다고 하며, 저항 학생들은 "전두환을 쪼개 죽이려"고  
외치며 화형식을 몇차례 치르며 새로운 전투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전세계에 관심있는 코르들은 이미 각국 원수와 의회 지도자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  
금명권에 넘어진 대량학살을 중지 할수 있도록 도와 줄것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슬마 했던 미국이 전방에서 북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병력 마저도 <sup>백만명</sup> 대량학살  
에 협조 하였다는 사실은 미국을 건국 할때, "인디언을 학살한 칭고도" 의 비인도  
적 만행을 회상 하게끔 한다.

시각을 다루는 특공대의 광주 초토화 작전으로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  
는 아무도 모른다. "캄보디아에서는 300 만명을 죽였는데, 우리는 100 만을 희생  
해서라도 공산화를 막아야 한다," 는 논리가 실권자 5 인의 장성의 철학이라면, 비극  
은 더욱 커질 것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민주적인 정부를 위한 선량한 시민과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댓가가 질서유지라는 명목으로 이성을 잃은 무자비한 군사력에 의한 대량학살  
인가? 과연 이러한 엄청난 비극을 20 세기의 현실에서 그 누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는가? 형제들이 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부모 형제  
들을 편안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것인가?

우리들의 동포를 구하기 위한 행동을 다음과 같이 제안 하오니, 적극 참여를  
바랍니다. 각국 국가 원수, 의회지도자, 국제적십자등 인권단체에 한 통씩의  
전보를 급히 보냅니다. 한 표의 전보가 하나의 생명을 구합니다.

자유를 위해 싸우다 죽어 가는 광주우익형제  
자매를 위해 전보라도 씌시다

( Aufruf zur "Telegramm-Aktion" für  
die Freiheitskämpfern von Kwangju )

Empfänger : Carter Whitehouse WashingtonDC

- 1, Yankee gohome outof Korea  
양키야 한국에서 꺼져라
- 2, Slaughter of Koreanis America  
한국사람을 살해한자는 미국이다
- 3, America in Korea so bad as Russia  
미국은 소련처럼 나쁘다
- 4, You want Korea like Iran Chile Vietnam  
너희는 한국을 이란 월남 칠레처럼 만드려드는구나
- 5, Carter what is humanright in Korea  
카터야 무엇이 한국의 인권이나
- 6, Kwangju citizen live forever  
광주시민은 영원히 산다
- 7, Kwangju citizen live you shall die  
광주시민은 살아있고 너희는 죽으리라
- 8, Korean never abandon fight against you  
한국사람은 너희와의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 노연통신

제 63 호

- 재독한인노동자연맹 -

1980. 5. 30.

Koreanischer Arbeiterverb.

Lehrerstr. 19

4100 Duisburg 12

Lee, Han-Zyung

Postscheckkonto Nr

1238 85-459 PochA Essen

## 광주시민에 대한 미량 학살을 규탄함 (성명)

지난 4월부터 학원의 민주화와 어용고수 퇴진 등을 요구하여 일기 시작한 학원 민주화운동은 이달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학도호국단철파, 계엄명철폐를 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되어갔다. 이와 동시에 임금인상, 해고반대, 노동 3권의 보장과 1일 8시간노동제 준수 등을 요구하는 평화시장, 금용노조, 진해화학노동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시작된 노동운동은 4월중순 강원도 정선지구 안광노동자들의 대중적인 투쟁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정선광부들의 승리에 힘입은 전국각지의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비롯하여 자거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으로도 발전되어가고 있었다.

이와같은 노동자들과 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국민들 속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정권의 위협을 느낀 우신찬당들은 지난 18일 전국에 걸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김대중씨를 비롯한 재야민주세력의 중심인물들과 학생운동의 주동인물들을 모조리 잡아가두기 시작하였다.

우신찬당들과 어용언론인들이 떠들어대는 이른바 "소요"나 "난동"은 결코 학생들이나 노동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들의 생존권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찾기 위한 너무나도 정당한 권위행사를 강압적인 방법으로 탄압한 경찰 및 군대측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번의 광주민중봉기도 처음에 학생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계엄명 철폐"와 "구속자의 석방"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것을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무차별 탄압을 가하고 심지어는 공수부대가 도망가는 시위자를 쫓아가서 잡아죽이려 시위자에게 돌맹이를 날라다주었다고 여학생을 데냐에 군중들이 보는가운데 덩겁으로 질러죽인 군사강대들의 만행에 대하여 광주시민들이 격분하여 들고일어난 것이다. 맨주먹의 시위자들을 칼로 질러죽이고 총으로 쏘아죽이는 탄압에 시위자들은 성난 사자들과 같이 들고 일어나 군대와 경찰의 무기를 빼앗아 스스로 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젊은이들은 모조리 죽이는 판에 죽기를 각오하고 사사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

30만을 넘는 광주시민들의 봉기는 민주주의적 자유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며 이 위대한 항쟁은 1894년 외세의 침략과 봉건군주제배들의 가혹한 수탈과 억압에 항거하여 일어난 갑오농민전쟁(동학혁명)을 비롯하여 1905년부터 1910년사이 일제의 침략에 항거하여 전국각지에서 줄기차게 일어난 항일의병들의 항쟁과 그후로 끊임없이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거족적으로 일어난 3.1운동, 6.10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과 그후의 4.19민중봉기, 지난해 10월의 부산-마산민중봉기들과 같이 외세의 지배를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독립과 민중의 해

방을 위한 우리 조상들의 거룩한 민족혼을 이어받은 것이다.

이와같은 정의로운 우리의 청년학생들과 노동자들의 투쟁을 계엄당국은 "난동" 이니 "불손분자의 계엄"이니 하고 떠들면서 봉기에 각담한 사람들을 수천명이나 죽이고도 모자라서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 사람들을 잡으려고 날뛰고 있다.

우리들은 자기의 정당한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항쟁하여 장렬한 최후를 마친 광주 의 혁명적 시민과 학생들에게 충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시하면서 이들이 이루지 못한 뜻을 이어받아 승리의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수천 명의 학생들과 시민을 한밤중에 습격하여 모조리 학살한 군사정권의 만행에 치솟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으며 이 작전을 지휘한 전두환, 이희성 등을 민중적 사상으로 낙인하고 우리들의 심장이 뒹고 있는 한 이들을 피로써 복수할 것을 결의 하며 전두환일당을 군사적, 정치적으로 지원, 업로하고 있는 미국의 권력층을 광주 시민학살의 공범자로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 우리의 주장 -

1. 계엄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체포한 학생, 시민들을 무조건 석방하고 피신중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추격하지 말라
  2. 정부는 계엄령을 즉각 해제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갈려있는 모든 외국자들을 석방하고 이들에게 공명권을 회복하라
  3. 정부는 이번 사태에서 희생되었거나 부상당한 사업들과 그 가족들에게 보상금과 연금을 지급하여 줄것
  4. 한국의 군사독재를 지원, 업로하고있는 미국은 더이상 한국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모든 군대와 무기를 철거시켜주고 물러가라
  5. 이번 광주사태와 지난해 10월 부산-마산봉거에 작전을 지휘한 군지휘관을 처단하라
- \* 해외교포들은 이번이 희생당한 외국자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구호금과 의약품을 보내자

1980년 5월 27일

재독한연노동자연맹

## 최근 한국사회의 대한 우리의 입장과 결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을 주시해온 우리는 최근 광주시민의 의거의 역사적 중대성을 절감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과 결의를 밝힌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암살사건 이후 전두환 일당의 등장으로, 우리 민족 생존의 기본요청인 조국민주화에 역행한 민족반역, 민족배신 행태이었다. 이에 목숨을 바쳐 항거한 전승 광주시민의 불기난 국민의 양면한 결단이며, 나라의 앞길을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국민의 기본적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역사적 장거이었다. 정당한 자명한 이 항거를 현인공로할 만행으로 득행한 귀 근무일라의 행태는 즉각 심판 받아야 할 민족에대한 최상의 범죄 행태이었다. 뿐만 아니라 귀 등의 즉거를 지금까지 동료한 머슴의 행태는 스스로를 기만해온 자커모순의 구체적 실증이다.

항변도 평화와 정의가 국가근리의 기본 원리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이 나라에서, 이를 위하여 투쟁하라 이토록게 습적간 우리의 애국동포들에게 삼가 명부를 빈다. 우리도 그들이 함께 우리나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투쟁의 데크에 서는 것만 리접하며, 라노라 같이 결의하고 요구하라

1. 광주철상은 저지른 전두환 일당은 즉각 재기 되어야 한다.

2. 여하한 형태의 근무의 결의 74.6도 정당한 될 수 없으며, 국민 모두가 각신들의 정치개입을 철저히 반대하고 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라.

3. 미국은 현재까지의 자기기만의 행위에서 벗어나는 길이 한국 뿐만이 아니라, 제3 세계 국가들에게 자행해온 지금까지의 범죄적 행위를 독죄하는 길임을 같이 인식하라.

1980년 6월 8일

Clausthal. Göttingen

민주 교포

# WAS GEHT UNS *Korea* AN ?

eine Antwort an Christen und andere Deutsche

von Young Bin Lie, zZt. Alte Nikolaikirche

1. Viele Christen sagen: Wir haben mit POLITIK nichts zu tun.

Wir antworten : Doch, Ihr habt. Denn Ihr habt die Diktatur an eigenen Leib kennengelernt. Ihr habt Hitler erlebt.

Das Volk von Korea lebt seit mehr als 20 Jahren unter einer Diktatur, die der von Hitler sehr ähnlich ist.

Freilich, die große Masse des Kirchenvolks in Deutschland blieb damals unkritisch. Man ließ den Diktator schalten und walten, weil man sagte: Wir Christen haben mit POLITIK nichts zu tun.

Nur ein kleiner Kreis leistete Widerstand - die Bekennende Kirche. Sie hat die Konsequenzen aus der Diktatur gezogen. Viele bezahlten dafür den Preis ihrer persönlichen Freiheit, einige sogar den Preis ihres Lebens.

Auch in Korea hat sich nur ein kleiner Kreis den Widerstand geleistet. Auch sie waren und sind bereit, den hohen Preis zu zahlen.

Es gibt heute in vielen unterdrückten Ländern der Welt Christen, die, so wie wir in Korea, aus den Erfahrungen der Christen damals unter Hitler zu lernen versuchen. Was wir lernen wollen, ist dies: die Diktatur nicht freien Fußes laufen lassen, sondern WIDERSTAND LEISTEN.

Selig sind, die um der Gerechtigkeit willen verfolgt werden (zum Beispiel weil sie gegen die Diktatur Widerstand leisten), denn ihnen gehört das Reich Gottes.

Matthäus 5, Vers 10.

2. Viele Deutsche sagen: Wir haben mit KOREA nichts zu tun.

Wir antworten: Doch, Sie haben zu tu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und Korea bestehen wirtschaftliche Verbindungen, die Bundesrepublik zahlt Entwicklungshilfe an Korea, Krankenschwestern aus Korea tun seit 15 Jahren in Ihren Krankenhäusern Dienst.

Vor allem aber: Korea ist, genauso wie Deutschland, ein geteiltes Land. Deswegen ist Ihre Politik im geteilten Deutschland für uns im geteilten Korea sehr wichtig. Zwischen Ihnen, den Bürgern der Bundesrepublik, und denen in der DDR gibt es viele Kontakte: Briefe, Telefon, Besuche, Sport, Handel, Kultur. Aber zwischen Nord- und Südkorea ist der Vorhang absolut undurchdringlich. Keine Briefe, kein Telefon, keinerlei Besuche - nichts. Deswegen ist die Öffnung, die zwischen den beiden Deutschland besteht, für uns Koreaner ein Traumziel.

Vielleicht verstehen Sie nun, daß die Entspannungspolitik, die hier getrieben wird, für uns Koreaner ein wichtiger Beitrag ist für unser geteiltes Land und für den Weltfrieden.....

verantw.: Young Bin Lie  
Paul. Gerhard-Gemeinde, Ffm/ain

Offener Brief

An die Bundesregierung, SPD-Bundestagsfraktion, FDP-Bundestagsfraktion

Am 17. Mai 1980 wurde in der Republik Korea (Südkorea) das totale Kriegsrecht verhängt. Hunderte von Menschen haben - nicht nur in Kwangju - für ursprünglich friedliche Proteste, an denen sich zehntausende beteiligten, mit Leben und körperlicher Unversehrtheit bezahlt. Tausende wurden zeitweise oder auch für die Anklage von einem Militärgericht in Haft genommen. Es ist international bekannt, daß in koreanischen Gefängnissen routinemäßig gefoltert wird.

Die Militärjunta unter der Führung von Chun Doo Hwan hat in Südkorea eine reine Willkürherrschaft errichtet und hat es bis jetzt noch nicht einmal für nötig befunden, sich auch nur den Anschein von Legitimität zu geben. Chun und seine Anhänger proklamieren, daß sie das Erbe des ermordeten Präsidenten Park antreten wollen - sie bedienen sich dabei des von ihm entwickelten Instrumentariums der politischen und sozialen Unfreiheit (Militär, Geheimdienst, Notverordnungen, Folter und Mord) !

Da der Widerstand gegen diese Unterdrückung sich schon im letzten Jahr verstärkt hat und fast alle Schichten der Bevölkerung erfaßte, was schließlich zur Ermordung Parks durch seinen eigenen Geheimdienstchef führte, gehen die Militärs jetzt mit entsprechend größerer und systematischerer Brutalität vor. Es steht zu befürchten, daß die Militärs um Chun Doo Hwan sich mit der Zeit eine pseudodemokratische Fassade errichten, ähnlich der Yushin-Verfassung, die Park 1972 der Bevölkerung aufzwang. Dann wird eine ähnliche Situation wie damals entstehen: eine durch Kriegsrecht geknebelte Bevölkerung darf in einem "Referendum" eine Verfassung akzeptieren, die sie ihrer minimalen demokratischen Rechte beraubt und über die zu diskutieren nicht erlaubt ist. Der Aufstand von Kwangju hat gezeigt, daß immer weniger Menschen in Südkorea bereit sind, dies System auch nur hinzunehmen.

Das Militär kann sich daher nur auf die Gewalt stützen - und auf die Tatsache, daß sein Unrechtregiment international hingenommen wird. Zwar erklären sich Politiker allererstens "schockiert" und "bestürzt" über die Brutalität des Regimes, aber solche Erklärungen werden in Südkorea natürlich von den Menschen und auch von den Militärs verständlicherweise solange als bloße Lippenbekenntnisse aufgefaßt, wie sie nicht von handfesten Beweisen der Mißbilligung begleitet sind

Wir fordern daher die Bundesregierung auf:

- dem deutschen Botschafter in Seoul die Möglichkeit zu einem ausgedehnten Heimaturlaub zu geben, bis Chun Doo Hwan und seine Spießgesellen zurückgetreten sind.
- technische und Kapitalhilfe für Südkorea sowie kulturelle und politische Zusammenarbeit mit Südkorea einzustellen, solange das Kriegsrecht bzw. dem Kriegsrecht vergleichbare Zustände dort herrschen.
- gegen alle Praktiken der Botschaft der Republik Korea sowie des KCIA, die der Einschüchterung von in der Bundesrepublik lebenden Koreanern dienen, energisch einzuschreiten.

ESG Bochum

12.6.1980

Auf der Papenburgstr.14  
4630 Bochum, W. Germany  
June 3, 1980

Dear

Across television screens throughout Germany, the living and half-living bodies of the students of Kwangju are dragged, like swine carcasses to the slaughterhouse. A South Korean soldier lifts the head of a prone, defenceless student, billed as crying for democracy, from the pavement, and places a wire thong ~~und~~ <sup>and</sup> around his throat. Wordlessly, the head looks out at the faces of millions of our friends and enemies throughout this continent. In the background we hear the words "S. Korean troops are under the command of U.S. General Wickham who gave America's permission that troops be released for this operation."

I try to remember the times when I was still proud to be an American: the raising of the flag on Iwo in early 1945, the landings I made as a Marine lieutenant on Saipan, Tinian, Japan. Much farther back still I think of the days when my ancestors, like the students of Kwangju, swarmed in the streets of Boston before and during 1775, threatening, in English eyes, Boston's security and asking for liberty from a power perhaps 5% as oppressive as that today in S. Korea. So it has all come to this. As an American officer in a war against Hitler, I never dreamed that I would live in a time when even the silence of my German friends reproaches 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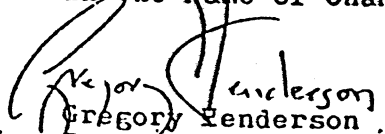
And it is still not enough. My President must declare on television that our support must increase for a regime without the slightest apparent glimmer of public support which treats its own citizens with a cruelty which would ~~have~~ <sup>have</sup> a Visigoth blush. No, not enough. At a conference on Korea in Göttingen the Korea Herald of May 17 arrives in the midst of this carnage. Blandly, the world of official Seoul dances on with no mention of Kwangju's blood and page three is, from top to bottom, given over to a garden show of the newest fashions prominently featuring Mrs. Ambassador Gleysteen. An agitated silence descends on the conference; every mind is recalling Marie Antoinette in the Petit Trianon while the crowds of St. Antoine howled for bread. Is all her father did for the US in China when we so respected now to founder on this rock? Poor thing, she could not control the Korea Herald nor did she know of Kwangju when she paraded her fresh, chic gowns. But from the symbolism one can only draw back in. It goes; as Mr. Miller said, 'with the territory'.

American policy lies in the street, as trampled and bloody as the students of Kwangju and even more defeated than they. But no one in the American government--certainly not our President--seems to know it. It is the policy of building a military 'wall' behind which the Koreans can freely erect their own, hopefully democratic, institutions. In this policy name we steadily, ineluctably build up Korean armed forces in a small land with weak alternate institutions. The army received mounting percentage of our aid--greatly the lion's share--and becomes the vast umbilical chord between the admired, developed country and its protégé. Eyes firmly shut to all that armies have done in coup, in governments, in juntas, in repression throughout the developing world, we press forward in the pretence that we do is 'security', is 'defence', is 'military' and has nothing whatever to do with politics. The result of this policy is almost totally predictable and has been predicted by me in print for years. The personalities of Park and Chon add to it no more than 10-15%. It is a pure policy error. The results of this policy ensure army control over civilian politics with all its blasting of hopes for either democracy or progress in human rights.

This result was graphically etched into Korean history by Park's 1961 coup and long regime. It was etched again when Park used US tanks and arms to make more cruel and repressive his system in the October 1972 Yushin coup. It was etched further by Chon's December 12 coup. Now in Kwangju the etching is so deep that the plate itself is broken. And still we do not see. There are alternatives to this policy which I have also described in detail in terms of a more toward restoration of par. 13(d) of the existing Armistice Agreement, inspection devices, neutralization in cautious stages, possibly eventual unification. It is in everyone's interest. But no one wants to try. No one wants to put the Korean pot on the front policy burner while Korea is peaceful. We want to leave it on the back burner where, some 8 times within living memory, the Korean pot boils over. Blinder than Cyclops, thrashing as unavailing, we persist in a basic policy which inevitably brings the results we have seen in the last 19 years in Korea and again in Kwangju today, a catastrophe for which we Americans stand absolutely responsible. The blood of those who cry for democracy and basic human rights is on our hands. That what we are doing has any reasonable, permanent relation to security should be obvious to a primary school student. We are not, alas, even in primary school. Security cannot rest in a military which the population wants to fight.

Let the case rest there for the moment. Obviously no Korean case is going to rest anywhere very long. Clearly the present Korean regime and system cannot, even with our help, be an enduring one. Somehow one hopes that someday, somehow we can be on the right side of things as we were in April 1950 during the student revolution, and not eternally on the wrong, the anti-democratic, the repressive, the cruel side, fighting, so to say, against our own ideals. But whether we listen to Washington or to the 8th Army or to US Embassy Seoul or to US Embassy Tokyo, we do not seem to find Americans faithful to any ideals whatsoever, let alone to their own. This last week's Süddeutsche Zeitung expresses it all too well: an American tank flying the US and ROK flags crushes a student holding a banner asking for freedom and democracy. Twenty-six years ago, when I served the US High Commissioner's office in Germany, such a cartoon could have appeared only in Communist East Germany. Now it appears in conservative Munich; and none can deny its truth.

In the Name of Change



GREGORY HENDERSON  
American Foreign Service Officer, 1947-64  
US Embassy, Seoul, 1948-50; 1958-63  
Acting Korea Desk Chief, US Dept. of State  
Author: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 이같은 주동 한국대사관에서 국민들에게 배포한 소식임」

## 국내 소식 속보

서울밤 5. 27.

1. 수영관 소요 사태가 지속된 광주시는 금 27일 05:10시 근부대가 광주시 전역을 잠악함으로써 평은을 다잡고 번과 짐서온 회복하게 되었음. 근부대는 위험이 시하여 근경에 빠져있는 두고한 시민을 그을하기 위한 등 작전 수행에 있어서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인공 등착을 기 해결하도록 진력하였으나 일부 근도등이 과격한 소의 행동으로 사태를 악화시키려고 취책함으로써 근 작전중 2명의 죽도가 사망하고 근인 4명이 부상하는 한편 시민측에는 이따런 인명 피해가 있었음.

2. 식교하 대동력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임 사령관으로 부락 광주 식적 수습에 관한 보고를 받고, 내국은 광주시 일원 근후 및 복구 적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긴급 구호와 복구등 위: 적대한의 정부 적원은 하도록 필요한 조치등 서를 락 집행하리코 방송은 국모총터 이적 지시했음.

이 당적 위원회는 김원기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등 위원장 으로 하여 경제 과 부장관과 김종환 내무, 이공도 문공부 장관등으로 구성되며 이 위원회 아래에 차관급으로 구성되는 긴급 구호 실무위원: 유구심부위원 과과 설치함.

3. 이와 관련 정부 대변인은 5. 27. 아래와 같은 담화문을 발표 하였음.

"금일 새벽을 기하여 무분별한 폭도들에 의하여 무법 사태에 처했던 광주시는 직업군의 진입과 함께 공공 안녕과 질서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직업군의 군사 행동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광주시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음을 다행으로 여기는 한편, 광주시 임원을 시급히 정상화하고 광주 시민을 위한 긴급 구호와 복구대책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며, 10일간이 걸친 소요와 폭등으로 인하여 등 지역이 입은 타국의 상처를 치료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과 공공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또한 정부는 등 소요로 인하여 인명피해, 재산손실, 무법 사태가 발생함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심심한 우감을 드하는 바이며, 특히 고통스러운 수일준 공포와 그 난은 겪어야했던 광주 시민들에게 대하여 더욱 우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광주 사건은 우리 국민 모두가 스스로를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며 이 나라에 다시는 이런 참변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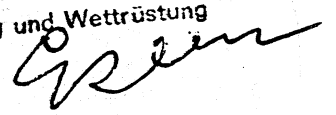
6. 25. 새벽의 등족 상잔을 이미 겪었고 또한 등산주외자의 끊임없는 위협하여 치욕있는 우리들은 모든 권력을 조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만큼 국민 여러분의 자제와 손기가 요그되는 바입니다.

정부는 사태수습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들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는 바입니다."

# 참고 자료

1. FAZ (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 FR ( Frankfurter Rundschau)
3. WAZ ( Westfälische Allgemeine Zeitung)
4. SZ ( Die Süddeutsche Zeitung)
5. Die Welt
6. Die Zeit
7. Vorwärts
8. Die Tageszeitung
9. Der Spiegel
10. Fareast Economy
11. Herald Tribune
12. The Time
13. 독일국립 제 1, 제 2, 제 3(WDR )TV 방송
14. BBC 방송
15. 요미우리 신문 ( 일본 )
16. 마이니치 " ( " )
17. 아사히 " ( " )
18. 상궬이 " ( " )
19. 동아일보
20. 조선일보
21. 한국일보
22. 뉴코리아 타임스 ( 캐나다 )

Die Föderation der Koreaner in der BRD  
gegen Krieg und Wetrüstung



*Über dem von aufständischen Koreanern erbeuteten LKW zeigt ein Foto die Leiche eines bei den Kämpfen umgekommenen jungen Mannes, der von der koreanischen Nationalfahne bedeckt wird. foto:ap*

